

## 第 2 分 科 會

(産 業 協 力 分 野)

〈코디네이터〉

韓國側：金 都 亨 産業研究院 先任研究委員

日本側：大慈彌省三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副社長

〈第 2 分科會 백그라운드 페이퍼〉  
(産業協力分野)

## 韓日 兩國의 建設協力 方向



三扶土建 株式會社  
社長 趙 恒 九

### 1. 序 言

現在 韓日 兩國의 建設業界는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國家 全體의 建設投資費나 契約額(수주고)이 감소되었으며 기성액, 경상이익 등이 모두 감소되었다. 또한 자금조달도 어려워 거의 모든 회사들이 경영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그 중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거나 도산되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금번 한일 경제인들이 서로 자리를 같이 하여 건설산업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관심사와 협력방향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우선 한일양국의 건설업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국의 건설협력 방향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 韓日 兩國의 建設業 現況

### 가. 韓 國

#### 1) '98년도 계약실적 및 '99년도 전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도 국내건설공사의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8.8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축 공사는 IMF 영향으로 주택분양의 부진, 임대 office building의 공실을 증가(서울의 경우 '98 기준 20~25%),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56.2%나 감소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99년도는 '98년도에 비하여 다소 희망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확실한 전망은 어렵다.

[표 1] 국내 건설공사의 계약실적 동향 및 전망

(단위 : 조, %)

구 분		1997년(P)	1998년(F)	1999년(F)
계약	공 공	35.41 (31.6)	32.40 ( -8.5)	31.43 (-3.0)
	민 간	44.32 ( 6.0)	16.40 (-63.0)	17.38 ( 6.0)
	토 목	33.73 (47.8)	28.65 (-15.1)	27.97 (-2.4)
	건 축	46.00 ( 0.2)	20.15 (-56.2)	20.84 ( 3.4)
	합 계	79.74 (16.0)	48.80 (-38.8)	48.81 ( 0.0)
기 성 액		78.25 ( 8.4)	59.50 (-24.0)	62.50 ( 5.0)

- 1)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들의 경사가격 수주 총계임.
- 2) 1999년 전망은 실질 GDP증가율 1.0%, 소비자 물가상승률 4.0%, 통화량 증가율 14.5%, 연평균 회사채 수익률 11.5%를 가정한 것임.
- 3) (P)는 잠정치, (F)는 추정치 임.
- 4)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2) 기성액 (공사기성실적)

'98년도 기성액의 경우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59.5조원으로 건설이 얼마나 어려웠나를 알 수 있다.

'99년도는 정부의 건설업 부양책으로 다소 나아지리라 전망하나 대부분 '98년도 수준과 같거나 밑돌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3) 주택건설

'98년도 9월 현재 21.79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46.6% 감소하였다. 원인을 살펴보면 미분양주택 호수의 증가와 분양이 되었어도 IMF체제 이후 분양금의 회수가 잘 안 되는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4) 해외건설

'98년도에 해외건설 수주액은 \$40억 정도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71%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남아제국이 금융대란에 휩싸여 투자가 감소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99년도도 전년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예상되어 해외건설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5) 건설업체의 부도현황

'98년도에 건설업체 부도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건설업체 부도현황 ('99. 3. 2)

년 도 별	'97	'98			'99
		상반기	하반기	합계	'99.1~현재
부도업체수	291개사	356 (106)	166 (185)	522 (291)	18 (194)

※ ( )의 숫자는 전년동기 부도업체 수입.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98년도의 부도업체수는 522개사로서 '97년도에 비하여 79%가 증가하였다. '99년도 초인 현시점에서는 아직은 부도업체의 발생수가 감소하는 것 같으나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 6) 건설취업자수

건설경제의 침체는 건설에 취업하고 있는 고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 11월 이후 1998년 10월 현재 취업자수는 152.4만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5.9%나 감소하였으며 금년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99년도 건설경기 전망

IMF 이후 현재 실업자수는 2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경기의 부양책을 통하여 실업자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는 첫째, 주택자금 융자, 금리의 인하, 그리고 많은 주택관련규제를 완화토록 주택정책을 개정하였으며, [표3]

[표 3] 올해 추진될 주요 주택정책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예정시기
중도금 대출금리	연11%	단계적 인하	상반기
재개발사업자금 금리	연12%	중도금 대출금리에 연동	상반기
중형임대주택 가구당 지원한도	분양가의 50%	한도폐지	3월 중
18평 이하 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	연 3%	연 4%	3월 중
근로자주택 구입 전세자금 한도	구입=1,600만원 전세=1,000만원	구입=2,000만원 전세=1,500만원	하반기
주거환경개선자금	호당 1,200만~1,400만원	호당 1,500만원	하반기
재개발조합원 지분 배분	1가구(나머지 지분은 현금 보상)	지분만큼 가구 배분	하반기
국공유지 매입 및 배상금 상환조건	연리 5~8% 10년 분할	연리 5% 15년 분할	상반기
재건축 조합 설립요건	20가구 이상	가구수 제한 폐지	상반기
재건축조합원 명의 변경	전매·이민·사망등으로 제한	증여·법원판결도 포함	상반기
부도사업장 인수대출금리	연 9.5%	연 8.5%	3월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	-	신규시행	상반기
온라인 복권	-	신규시행	2000년
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지원	1인당 6,000만원 (준공후 미분양 2억원)	모든 미분양주택 2억원	하반기
다가구 인정기준	3층 이하, 660㎡ 이하	주거용도만 3개층 이하 660㎡ 이하	5월9일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 지원 규모	750억원	1,500억원	시행 중
노인·외국인 주택제도	-	건설·공급기준 마련	하반기
채권인찰제	투기과열지역 시행	폐지	5월 중
미분양 임대주택용지 분양전환시 규모 제한	주택규모를 임대주택 규모로 제한	폐지	4월 중
임대주택관리제도	입수자 자치관리 불인정	입주자 자치관리 허용	하반기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둘째, 정부는 건설자금의 조기방출과 SOC사업의 예산을 '98년도 대비 6% 증가한 12.2조원을 책정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대책을 확정, 앞으로의 공공사업에 있어 효율적이고 Loss 없는 운용을 기하도록 각종 시책을 강구, 조만간 시행할 단계에 있다.

IMF이후 한국의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 ① 수주물량의 감소와 과도한 **건설업체수** ('98년도 기준 종합건설업체수는 4,302개)로 야기되는 치열한 수주경쟁과 Dumping수주
- ② 버블시대에 갖고 있던 과도한 부채와 이로 인한 막대한 금리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삭감 등 모든 어려운 문제점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 또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표 4]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단계	항 목	현 행	개 선
기획	타당성조사 기준	조사기관 임의 선정	표준지침 마련
	" 부실시 제재	-	입찰참가제한 및 부실벌점 부과
	기본계획 수립	-	의무화
	사업우선순위	사업부서 임의 결정	기본계획에 반영
설계	설계비	선진국의 60% 수준	선진국의 80% 이상
	설계기간	선진국의 50% 수준	선진국의 100% 확보
	기본설계 비중	실시설계의 30%	실시설계의 50%
예산	예산요구 편성순서	설계-사업비, 보상-사업비 동시요구, 편성	절차대로 순차 예산편성 의무화
	예산편성기간	제한 없음	총사업비 확정시 정한 적정기간의 1.3배 이내
	1차역도예산배정	"	사업의 종류 규모별로 일정금액 이상 편성 의무화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시 조치	-	업체 손해를 보전토록 페널티 부과
보상	보상시기	사업시행중 계속 보상	일정 보상후 발주
	수용재결기간	4~5개월	3개월 이내
계약	보증심사	심사없이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여부 심사 발급
	보증수수료	업체 부담	원가 반영
	연대보증제	적용	폐지
	기공식 등 행사비용	업체 부담	예산에 반영
시공 및 사후 관리	공사계획수립	전체공사에 대해 수립	세부공사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실명제	타당성조사·설계·책임설계 자만 실명 시공·감독·감리 자등 주요 참여자만 실명	세부 내용별 참여자 전원 현장 직업반장까지 실명
	사후평가	-	의무화

## 나. 日 本

### 1) 수주

日建連 Hand Book '98에 의하면 日建連 법인회원의 수주총액은 [표 5]와 같다.

[표 5] 日建連 법인회원 수주총액

구 분	1995 년도		1996 년도		1997 년도	
	실 수	증가율	실 수	증가율	실 수	증가율
日建連법인 회원수주총액	203,131	4.6	208,135	2.5	188,095	△ 9.6
국내수주	193,275	4.9	194,739	0.8	177,440	△ 8.9
민 간	113,119	△ 0.2	124,958	10.5	117,468	△ 6.0
관 공 사	79,175	13.4	68,860	△ 13.0	59,200	△ 14.0
해외수주	9,855	△ 0.9	13,396	35.9	10,655	△ 20.5
日建連법인회원국내 수주액/건설투자(%)	24.2	1.0	23.9	△ 0.3	23.7	△ 0.2

본 표에 의하면 '97년도의 경우 계약액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98년도는 아직 결산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확실치 않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2) 주택건설

일본의 주택건설은 착공을 기준으로 '95년도에 148.5만호, '96년도에 163만호, '97년도에 134.1만호로서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 3) 건설업체의 도산현황

건설업의 도산현황은 '95년도에 3,786건, '96년도에 3,710건, '97년도에 4,785건으로 '97년도에는 특히 상장제네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건설취업자수

건설취업자수는 '95년도에 530만명, '96년도에 588만명, '97년도의 경우는 685만명으로 건설투자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취업자수는 별로 줄지 않았으나 '97년 11월 이후는 다소 감소되고 있다. 참고로 건설취업자수는 총고용인의 10%정도이다.

### 5) '99년도 건설경기전망

'99년도 건설업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업체수 144개사중 78개사가 기성액의 경우 작년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고 16개사 즉 11%만이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웃돌 것으로 대답하였다. 수주공사액의 경우 144개사중 47%인 68개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2%인 18개사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결국 일본도 건설투자의 감소 특히 민간설비투자의 감소에 의한 건축감소로 전반적인 건설 불황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강력한 건설시장 개방화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어 수주고의 일부를 외국업체에 할당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업체의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 3. 韓日 建設協力 方向

### 가. 한일 건설협력 추진 경위

한일간의 공식적인 협력관계가 시작된 것은 1977년 4월 11일 「대한건설협회」와 「일본해외건설협회」가 두 나라 건설업분야의 민간협력체로서 한일 건설협력협의회를 창립하면서부터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협의회는 창립목적은 ① 한일건설업체간의 이해와 우의증진, ② 국제 및 기술협력증진으로 그 동안 1998년까지 18차에 걸쳐 교차로 장소를 바꿔 가면서 매년 협력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협력사업분야

- 한일조인트벤처 가이드라인 재정 및 구체적 방안 추진
  - 한일양협회의 회원사 사업개요교환
  - 공동수주협력증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제협력 실무위원회 운영 (총 4회)
  - 국제협력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총 3회)
  - 한일 양측의 건설업 관련자료의 상호교환



- 한일건설업자간 J·V, 컨소시엄, 원·하도급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총 147건, 1977년~1997년)
- 한국내 민자유치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한일양국간 공동참여  
추진(1998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제17차 총회시  
한국의 민자유치 대형Project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 한일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따라서 국내 대형SOC Project, 또는  
부동산 분야에서 일본과의 공동협력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파악하여  
이를 일본측에 제안한 바 있음. 즉 1998년 10월 14개사에서 32건을  
접수하고 동년 11월 30일 현대건설 등 9개사에서 27건의 Project에  
대한 공동협력서를 일본측에 송부했음.)

## ② 기술협력사업분야

- 일본파견 기술연수
  -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실드공법과정 등 총 115개 연수과정에 한국건  
설기술진 189명 연수
- 한국건설기술시찰단 일본 파견
  -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정보화빌딩 시공현장 등 총 101개 현장에 345  
명 파견
- 일본전문기술진 초빙 기술세미나 개최
  - 1980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초고층집합주택건설 등 총 29개 주제를  
강연
- 일본건설기술시찰단 방한
  - 일본측 기술협력위원장 등 일본건설기술시찰단 방한, 인천국제공항건  
설현장 등 3회 견학
- 일본의 신공법 자료 입수 및 안내 (약 814종)

- ③ 한편 본 한일건설협력협의회가 직접 관여되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한일  
건설업체간 협력관계에 의하여 추진된 공사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6] 일본국내공사 수주실적 ('95~'97.1) -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완성공사		시공중공사	
	수주건수	수주액	수주건수	수주액
단 독	11	11,388,291	5	16,153,145
합 작	12	61,699,403	2	54,327,057
하 도 급	-	-	1	19,394,449
총 계	23	73,087,694	8	89,874,651

※ 합작이나 하도급은 한일건설업체간에 시행된 것임.

[표 7] 제3국에서 일본건설업체와 협력실적 ('95~'97. 1)

(단위:천원)

구 분	완성공사		시공중공사	
	수주건수	수주액	수주건수	수주액
합 작	-	-	4	269,731,204
하 도 급	4	156,083,000	9	625,014,758
총 계	4	156,083,000	13	894,745,962

※ 관련업체수는 한국 10개사, 일본 18개사업.

## 나. 한일 건설협력에 대한 평가

지난 20년간 한일 양국은 한일건설협력협의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또는 양국의 건설업체간의 직접 협력을 통해서 공동수주나 원·하도급 및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 실적에 대한 한국업체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1) 한일 건설업체간 일본국내 또는 제3국에서의 J.V 및 원·하도급실적이 [표 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미미하다.
- 2) 한일건설업체간 J.V를 위한 한일 조인트벤처 가이드라인을 제3차 회의(1998년)에서 제정 공포하였으나 동 규정이 사실상 지금까지 死文化 되었다.
- 3) 한일건설업체간 해외건설공사에 있어서 J.V 또는 컨소시엄 등 공동수주 협력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제협력실무위원회를 1983년~1997년간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구체적 제안이 표출되지 못하였다.

- 4) 일본파견기술연수, 한국기술시찰단 일본파견, 일본전문 기술진을 초빙하여 기술 세미나 개최, 일본기술시찰단의 방한, 그리고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정보의 교환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측에 대한 일본측의 일방적인 협력이라는 점에서 상호협력의 효과가 미미하게 되었다.

## 다. 한일간의 건설협력 방향

### 1) 한일 건설협력 방향

앞으로의 한일 양국간의 협력관계는 지금까지의 쌓아온 신뢰와 호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공동시공 등 실질적 협력관계를 보다 확충해 나감과 아울러 기술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제휴와 협력관계를 보다 증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협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건설기술관리, 금융, 엔지니어링과 첨단기술 보유 등에서 우위에 있다면 한국업체들은 일본에 비하여 낮은 임금 외에 SAUDI 등 해외에서의 공사경험이 비교적 많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서로 보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양측에 이익이 된다고 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기술개발과 건설관리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한일 건설협력의 유형

한일 건설협력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국제협력분야

- 일본 국내공사(한일 양업체가 협력하여 수행)
  - J.V공사
  - 원·하도급공사
  - 개발사업공동수행
- 한국 국내공사
  - J.V공사

- 원 · 하도급공사
- 개발사업공동수행(부동산개발 및 SOC사업)
- 제3국 공사
  - J.V공사
  - 원 · 하도급공사
- 기타
  - 양국의 건설업 관련자료 교환
  - 건설 기자재의 구매
  - 기능공의 고용

#### ○기술협력분야

- 한국 기술자의 일본국내연수
- 기술시찰단의 교류
- 건설전문가를 상호 파견하여 기술세미나 개최
- 연구, 개발(R&D)관계 자료교류
- 기술제휴
- 건설정보화의 NET WORK 구축

이상의 국제, 기술 양 협력분야 중 기술협력분야에 대하여는 양국간의 기술수준차(건설기술 : 일본에 12년 뒤집 - 건설기술연구소 양국 R&D투자 비교 분석)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일방적 협력에 불과했으므로 하루속히 우리의 기술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한국도 그 동안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1996년 12월 일본건설기술시찰단이 영종도신공항현장, 서해안대교현장, 대우기술연구소 등을 시찰한 후 쓰가모도 단장은 한국건설업체의 변화는 일본기술시찰단의 예상을 넘는 변화로 발전하여 기술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소감을 귀국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다음 국제협력분야에 있어서는 제3국에 있어서는 공동시공방향에 더욱 양국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생산성 면에서는 일본에 뒤떨어지나 저임금, 많은 해외경험, 근면성 등 장점도 적지 않으므로 공동시공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제17차 총회에서 한국의 민자

유치 대형 PROJECT와 부동산개발사업분야에서의 한일 양국 건설업체간 공동협력추진방안에 대하여 상호협력키로 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한국 건설업체들로부터 제안한 구체적 PROJECT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일본의 모든 건설업체들은 현재 한국업체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경영면에서 어려우니 자금참여는 어렵고 C.M (건설관리) 분야 등 자금을 동반하지 않는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해온 바 있다. 일본측이 제시한 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 건설업체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매사에 신중하고 철저한 일본인들이라 함부로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정부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각종규제의 완화정책이 발표되었고 SOC사업활성화를 위한 시행령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이 정도면 일본측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시행령에 반영될 SOC민간투자 관계 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 SOC 민간투자관계 시행령 내용에 대한 방향

- 사업추진 방식의 다양화 (BTO, BOT, ROT 등 모든 사업추진 방식허용)
- 경쟁국 수준의 투자 수익률 허용 (13% → 18%)
- 운영수입보장수준 상향조정  
(민간개인사업 80%, 정부고시사업 80% → 90%)
- 환리스크 지원제도 신설  
환율변동  $\pm 10\% \sim \pm 20\%$ 이내 : 사용료 조정허용  
 $\pm 10\%$ 이내 : 사업자가 흡수  
 $\pm 20\%$ 이상 : 손실 분은 재정에서 지원
- 세제지원 강화  
국가 귀속 시설의 기부채납식 부가세 영세율 적용  
일정기간 소유 운영후 기부 채납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활성화  
보증한도확대 : 기금의 15배 → 20배  
개별사업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조정 : 100억 → 300억원

## 4. 結 言

한일 양국 건설협력은 두 나라가 지리,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공통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 아주 미미하다고 한국측에서는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은 한일 양측의 관점에 따라 다르리라고 판단된다. 만약 한일 양측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수준차가 커서 일방적으로 일본측에서 한국측에 협력하는 것이라면 도움을 받는 측에서는 아무리 받아도 적다고 생각하고 주는 측 입장에서는 그만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는 한일협력의 기본 방향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한일 양국의 수준차를 줄이도록 한국의 수준을 LEVEL UP 시켜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건설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는 투자자금의 부족이다. 이럴 때 금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업체들이 한국의 SOC민간투자 PROJECT나 부동산 개발분야에 한국측 PARTNER와 상호보완 입장에서 협력한다면 상호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에 대한 自由討論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특히 본 건설업 분야는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야말로 앞으로 양국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는 앞으로 양국 경제 전망을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공공투자가 부진하게 되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지금 양국의 실업사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고용 흡수력이라는 것을 본다면 건설업의 경기 진작, 특히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 두 가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양국의 건설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조항구 사장님이 발표하신 이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일본측 코디네이터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조항구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역시 그렇지만 건설업계는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대단한 부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잘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한일이 경제협력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 주신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었다 라는 감상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규칙이나 제정 같은 것이 이루어졌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발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협력방향으로서는 해외건설의 공사 등에 있어서의 실질

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약문 안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만, 폐이퍼를 읽어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본이 건설관련 엔지니어링을 한국측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해외공사 경험을 살려서 어떤 공사를 원활히 수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발표 안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적극적인 참가를 일본측에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부동산 관계의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측은 받는 입장으로 언제나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이고, 주는 측에서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서 한국이 자국의 기술 수준을 향상을 시켜서 상호 보완적인 입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또 일본측도 그렇게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라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가운데서 건설업 관련분야에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시지만 부동산 관련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건설 관련분야 뿐만이 아니라 한일간의 기술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메꾸어 가면서 산업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그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또는 질문이 계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서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程 勳 仁川大學校 教授

조항구 사장님의 발표 논문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 '99년도 건설경기와 관련하여 정부가 새로운 주택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건설의 추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99년 이후에 단기적인 건설경기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일본도 비록 건설 취업자 수는 '96, '97년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97년도에 주택건설이나 건설업체의 도산 현황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국은 건설업 측면에서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일간의 건설 협력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석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논문의 필자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일본에 비해서 낮은 임금, 해외에서의 공사경험의 풍부 등을 무기로 해서 일본 건설업체들과 협력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매사에 신중하고 철저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동반자로서 인식해 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 한국 업체들이 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일본의 협력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자는 결론 부분에서 한국 건설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 투자자금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건설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 업계로부터 어떻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 업체가 일본 내에서의 경영난을 내세워서 한국 업계에의 자금 참여를 기피하고 자국 비동반사업에서의 협력, 참여만을 내세웠던 과거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두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일본측에서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도시바의 와타리 상담역님, 부탁드립니다.

渡里杉一郎 (株)東芝 相談役

도시바의 와타리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평소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저와 깊은 관계가 없는 분야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건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지진이 없는 한국, 그리고 지진이 굉장히 많은 일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차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설을 보면 아까 조항구 사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인천국제공항 건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 건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의 진척 상황,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다음으로 김규칠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金 圭 七 産業技術情報院 院長

저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규칠입니다. 저는 건설계통의 전문가가 아니고 산업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책임자입니다만 꼭 건설업에 국한해서 보다는 양국간의 협력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항구 사장님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이 있어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도형 코디네이터께서도 고용 흡수력과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업 협력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항구 사장님의 논문에서도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시고 상세하게 현황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측에서 과연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건설업 진출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에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일본측에 자금 지원을 어느 정도는 희망하는 것 같은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한국측 파트너와 일본측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과연 일본측 파트너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이 조금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일본측에서 과연 건설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에 관해서 일본측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것

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업종개방이 98.9%에 이르고 여러 가지 모든 공사 최대한 외국인투자도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 금년 4월부터는 외환거래도 대부분 자유화될 예정이고, 또 '98년 6월부터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토지 취득과 관계한 제한이 폐지되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고, 외국인의 국내 기업 M&A를 자유화해서 모든 형태의 M&A를 자유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98년 11월부터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체류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국세 감면대상도 확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건설업을 비롯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진출, 나중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만, 건설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양국간에 파트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 타진이라든가 교환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까지 별로 다루어보지 않은 분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설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동안 조항구 사장님께서 건설분야에 국한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의 실적에 관한 평가를 해 주셨습니만, 그것을 포함해서 산업협력 전반에 관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경위, 실적 등등에 대해서 평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진 대표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李 奉 珍 LEE ENGINEERING 代表

리엔지니어링의 대표 이봉진입니다. 제가 어제 기초연설을 비롯해서 오늘 건축의 문제점을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저희들이 일본하고 한국이 상당히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흡사한 것이 있는가, 문화도 역시 진보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얼핏 생각해 보면 문화적인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일본하고 한

국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표준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건설업도 예전에 서울시 건설업무 부장에게 자주 한 얘기였지만 한강 다리를 지나다 보면 다리에 박혀 있는 볼트, 너트의 크기가 제 각각이어서 균등하게 볼트, 너트를 사용한다면 우선 절약이 가능하고 미관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다리를 보면 한국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다를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특히 이런 기술분야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 문화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조를 원하고 기대하기 이전에 한국적인 문화가 일본의 가장 기술 문화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서로 신뢰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건설업에 한해서 하나 든다면, 가령 한국의 인건비가 싸니까 일본에는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공사비를 줄인다고 할 때에는 한국의 기술력, 그야말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급기술은 아직도 일본에 미흡하지만 모든 시공기술이라는 것은 한국이 상당히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적인 생각이고 아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일본어 표현 중에 아리가따메이와쿠(남의 친절, 호의가 도리어 괴로움)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와서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저질러서 하나도 싼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앞으로 한일 관계를 중요시한다면 한일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스탠더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기술자에 한해서는 일본에 가든 한국에 있든 똑 같은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요소를 갖게끔 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술지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한국식의 일본적인 스탠더드를 많이 익혀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서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익혀서 돌아오면 한국 기술의 레벨 업도 되는 것이고, 또는 그런 것이 또 이해가 되면 조금 더 레벨업된 기술에서도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측에서 혹시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그럼 가와사키중공업의 시오미 상무님께 부탁드립니다.

塩見 健三 川崎重工業(株) 常務取締役

가와사키중공업의 시오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베이스로 생각하는 것은 신뢰와 그와 더불어서 정당한 평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양국의 협력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와 또 별로 좋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반성과, 그리고 또 좋은 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것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파트너십에 하나의 키워드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Agenda 21을 실시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동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회 같은 것이 이를 위해 발족이 되었는데요. 저도 그것이 만들어진 것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 또는 일본 내에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파트너십이라든가 협력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탈피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는 아무래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보다는 한국 내라든가 일본 내라든가 이것보다는 제 3국에서의 어떠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는 제 3국, 특히 아시아에서의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나라에서

어떤 국가,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정비 이러한 것을 공동으로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호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 메리트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일본의 기술, 자금, 한국의 경우에는 저임금 또는 해외에서의 활발한 수주 경험, 근면성, 이러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일본의 경우에는 기술수준, 자금 같은 것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제특징들을 서로 잘 교류하는 그러한 파트너십이 구축되면 좀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본측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물론 건설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른바 산업플랜트, 대형플랜트 부분 안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니다.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임금이 저렴하다 라는 것은 사실 일본이 우리가 건설 같은 것을 하다보면 과연 한국의 임금이 저렴한가, 비교우위적인 코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인가, 현재 한국의 환율이나 원가라든가 임금상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IMF 이후에 그것이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그것이 비교우위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불안감이 아무래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 전반을 일본측이 컨트롤한다고 하면 자금과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이 어떤 코스트의 저렴함을 내게 되겠습니까만,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차라리 좀더 가격이 저렴한 다른 나라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동안 저임금으로 제공하겠다 라는 식으로 약속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일본측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코멘트인 동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여러 가지 코멘트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 都 亨 韓 國 側 코디네이터

이와 같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협력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평가가 계셨습니다.

특히 최근의 한국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영종도 프로젝트를 두고서 지금 미국측에서 참여 등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와서 건설시장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 마찰의 가능성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본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동 분야에 관해서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각종의 부동산 해외매각 같은 안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기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 좀더 포장만 하면 해외매각이 용이할 것도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매각이 잘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영종도를 비롯해서 많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해도 좀처럼 그것이 동원되지 않는 마당에 해외에서 자본을 과연 유치해 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분야가 이 건설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많은 분야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 하고 기대해 마지않는 조사장님께서 몇 분 질의해 주신 가운데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趙 恒 九 三扶土建(株) 代表理事 社長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천대학교의 정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우선 일본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파트너십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 번째는 한국측의 문제가 투자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업체에서 가져온다고 할 적에 과연 일본도 형편이 어려운데 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부족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일본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기술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 가서 한국 업체들이 공사를 한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저희 회사 자체도 일본에 한 5년 동안 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 건도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13개 업체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일본 말고 동남아 등 제 3국에 가서 건설을 하게 되면 그곳은 사실 일본처럼 그렇게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공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3국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건설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일본 건설업체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수준을 볼 것 같으면 일본 국내에서의 수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주로 일본이 아닌 제 3국에서의 파트너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업체들이 과연 자금을 한국에 투자해 가지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작년 10월의 일입니다. 한일건설협력회의 제18차 회의를 마치고서 거기서 한국측에서 약 14개항에 달하는 개발성 사업을 일본에 제의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답변은 지금 일본측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투자를 동반하는 합작사업은 도저히 어렵다, 단 건설관리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은 가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일본에 투자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 적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의 사정이 나아지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요즈음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많은 다국적기업, 스웨덴의 볼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단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한국의 투자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요.

두 번째로는 국제공항하고 고속도로에 일본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공항 공사에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심지로 연결하는 고속전철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건설이 주관사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조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여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일본측의 질문은 첫 번째는 규제의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 규제 장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었고, 두 번째



는 지금 국제공항이나 고속철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일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 恒 九 三扶土建(株) 代表理事 社長

지금 국제공항의 진척 상황은 64.5%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상의 차이로 일본하고 한국의 지진에 관한 진로 관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본 것 못지 않게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속철도는 서울에서 천안까지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 4월까지 끝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朝來野 泰宏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常務取締役

저는 질문도 아니고 코멘트도 아닌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으니,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플랜트 건설을 지난 30~40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현지 공사, 그 중에서도 특히 시빌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플랜트 메이커로 기계의 설계, 조달은 하고 있지만, 현지 공사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시빌 부문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외부 전문가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에서 많은 공사를 하여 왔습니다만, 그 때에는 몇 개인가의 한국의 건설업자 또는 토건회사의 도움을 받다 성공했거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과는 별로 큰 업무는 없지만 역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과 플랜트건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토건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그리고 항상 한국측 업자 중 누가 도와줄 곳은 없는가 하면서 찾지만 적당한 업자를 찾지 못해 업무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토건공사라는 것은 근로자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관리를 하여 납기를 맞추어 가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플랜트건설을 할 경우 아마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 가서 토건공사를 완성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국적인 것은 중근동으로 중근동은 거의 사람들도 없으며, 근

로자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와 같은 곳은 어떨까요? 나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이러한 것으로부터 조금 더 치밀하게 협의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현상이며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한국측 건설관계자의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을 가볍게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조금 전의 질문 가운데 표준이라고 할까요, 한일 양국이 유사하지만 문화의 스탠더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그 이외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일본측에서 기술협력 관계도 조금 전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니시무라 전무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西村 和義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 専務理事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니시무라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양국간의 산업협력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단은 7년 전에 양국 수뇌회담의 합의에 의해 양국에 각각 설립되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의 인재 육성,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 및 양국의 산업계의 상호 교류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왜 중견 중소기업인가 하는 것인데 한일 장기 무역불균형 원인은 주로 서포팅 인더스트리, 즉 기초적인 중견 중소기업의 취약성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강화시켜 가는 것이 무역역조의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협력사업을 위해 작년 1년 동안에 10수차례 한국의 많은 공장을 방문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에는

놀랄만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첫째로 제가 공장을 방문하여 보면 그 산업면에서는 오히려 이 어려운 시련기를 자기 개혁의 계기로 삼은 점,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의 의식과 자세가 크게 변한 점이고, 둘째로 여러 가지 제도가 과감히 변화되었으며,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자세나 제도를 보면 180도 변화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셋째로는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이후 많은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들을 좋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한일 양국 산업계의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필요성에 대한 슬로건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실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의 산업협력을 저해시키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하나는 역시 해외투자를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진심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고, 극심한 노동운동에 의한 인건비의 상승이라거나 협력보다는 오히려 라이벌의식이 상당히 있었거나 하는 등등, 그 중에 특히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일부에 나타나는 어떤 반일적인 약간 복잡한 감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크게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일년 동안에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국의 산업협력은 물론 지금까지는 많은 시행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부터 진정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산업협력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큰 프로젝트, 또는 어마어마한 큰 투자를 기대합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고 정말 소중한 협력들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사거나 구미 기업과 같이 기업을 금방 매각하거나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에 공을 들이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것이 일본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견 중소기업에서의 교류도 앞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또는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창구가 된 KOTRA와 JETRO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창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협력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KOTRA의 원스톱 서비스는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것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협력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초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이해와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커다란 산업협력이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지고 꽃이 피워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산업계에 서로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동시에 지역간 교류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아주 추웠을 때 한국으로부터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마션단이 일본의 북해도와 센다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해당지역과 어떤 새로운 따뜻한 파이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간 교류라든가 자매도시를 만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평소의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어제도 잠깐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외국이나 일본에 가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나라이니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의 투자설명에 대해서는 인상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 기업들이 결국은 한국 기업과도 마찬가지로 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외자기업들이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산업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일본 내부에서 제일 한국인들, 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회 또는 일본 산업계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함께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경쟁의식이 굉장히 많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지나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신시대가 개척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과 동시에 역할 분담 차원에서의 공조 체제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협력이 좋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산업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그에 따라서 협조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 있어서의 한일 양국의 산업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대책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문화라든가 국민 감정이라든가 국민 정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협력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혜를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반일이라든가 혐한이라든가 불신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짚어질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관계에서 정말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우리들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나 얼마간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조금 지나친 발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느낌과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가운데에는 우선 평소에 작은 치밀한 협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진정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 다음 분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友 泰明 (社)九州・山口經濟聯合會 常務理事

큐슈에서 온 큐슈경제연합회의 나가토모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작년 미야자키 경제인회의에 한국측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니시무라 전무이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쌓아 올려

나아가서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평소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 관한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만, 만일 양국이 앞으로 진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터운 파이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컬 투 로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큐슈 지역의 선전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3월에 전국종합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2015년까지 전국의 여러 가지 블록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국가 목표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큐슈는 아시아와 일체가 된 큐슈, 아시아와 함께 발전해 가고 아시아와 함께 생존해 가는 큐슈를 목표로 해서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집중해서 추진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책정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경위와 배경이 있습니다. 큐슈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지리적인 문제에서 보았을 때 후쿠오카와 부산은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산과 서울이 400km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보았을 때 후쿠오카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일본의 후쿠오카로 하는 것이 훨씬 가깝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리적인 근접성과 더불어서 모든 분야 모든 형태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류를 우리들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민 합동으로 한국의 산업자원부와 정기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것인데 한일해협 연안권시 교류서밋트, 그러니까 도지사 회의죠. 후쿠오카, 나가사키의 지사와 한국의 부산,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지사와 시장들이 매년 교류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작은, 동경의 신문에는 좀처럼 보도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한일 양국의 협조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한국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것은 큐슈는 일본의 서남지역의 작은 섬이기는 하지만 경제규모에서 보았을 때 인구, 면적, GDP가 네덜란드 한나라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GDP 하나만을 보았을 때는 한국과 같은 규모의 GDP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측에서 보았을 때 큐슈는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 외에는 동경에서 오신 분이 많은데 사실 동경=일본이 아니다, 서울=한국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컬 투 로컬, 지역간 교류의 어떤 중층적인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일 자유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구상이라는 것이 양측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인 근접성에서 보았을 때 그 모델케이스로서 예를 들어 큐슈의 북부지역과 한국의 남서부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검토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로컬 투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또 여러 가지 의견 등등은 다음의 일본측 백그라운드 페이퍼 발표 이후에 충분히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조사장님께 발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시 40분부터 개시토록 하고 커피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第 2 分科會 백그라운드 페이지〉  
(産業協力分野)

## 日本企業은 韓國의 投資環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日韓間의 投資促進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富士總合研究所(株)  
國際調査部長 海老名 誠

富士(후지)종합연구소의 海老名(에비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한·한일경제인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고, 아울러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라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1.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를 활발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새삼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현재 일본도 한국도 대단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97년도에 ▲0.4%, '98년도에 ▲2.2%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99년도도 저희는 ▲0.4%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올해는 플러스성장을 실현시키고자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주입 등 금융개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품경제의 뒷처리를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궤도를 타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 2001년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한국경제에 관해서는 '97년 말부터의 위기적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99년의 성장률 전망을 2%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경상수지는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동시에 주식 값도 호조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벌개혁이나 금융개혁 등 한국에도 아직 무거운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1~2년이 그야말로 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측면에서 힘써 나가야 할 과제는 실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모두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 것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출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막대한 부실채권과 차입과잉을 통한 과잉설비,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한 Corporate Governance에 위기의 주요인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들려 오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편, 경제가 힘찬 성장을 계속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계속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기업·산업 차원에서의 체질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日韓이 기업·산업 차원에서의 체질강화를 추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본 교류,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경을 초월하여 日韓의 기업끼리 같은 토양에서 절차탁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의 매크로경제에 관해서는 안정적인 외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고용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기업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의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고 또한 경쟁을 통해 생산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이며 함께 OECD 가입국인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서로 자본 교류를 활발화시켜서 기업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까지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움직임을 볼 것 같으면 심각한 현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1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만, 거품경제가 붕괴된 '90년 이후,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비교해 보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97년의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약 1조 5천억엔인데 반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약 500억엔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의 외환위기 발생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약간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98년 상반기에도 對韓 직접투자는 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 2) 그리고 또한 그림 3과 그림 4는 일본의 아시아·한국에 대한 무역과 직접투자의 추이입니다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무역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96년의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앞당겨서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97년의 외자도입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의한 한국기업의 M&A 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 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왜 침체되어 있는가?

1997년도의 실적을 보면,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실적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의 1/5, 중국·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의 1/4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은 과거 10년 정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추이되어 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프라자합의부터 2년 후인 1987년경부터입니다. 난폭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시아 진출과 투자를 검토한 일본 기업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기업이 대단히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과거 이렇게도 침체되었던가요? 우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교 생산비 우위가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 이미 코스트 면에서의 한국의 우위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임금이나 설비 등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OECD에 가입해 있는 한국이 코스트 면에서는 주변 ASEAN 각국과 비교해서 불리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한국과 일본과의 종합적 공통점이나 지리적 우위성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직접투자가 더 많이 한국에 투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코스트 요인 외에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나가고자 합니다.

### 3. 日韓間の 투자촉진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속보)

오늘은 일본의 通産省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한간의 투자 촉진에 관한 앙케이트」를 기초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앙케이트 조사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문제점으로 인식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앙케이트 조사는 通産省의 위탁을 받아 저희 富士종합연구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일본의 약 300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이번에 속보라고 할 수 있는 제 1차 집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이 제 1차 집계는 올해 2월 5일까지에 회수된 69개 업체의 회답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0개 업체 정도로부터 회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앙케이트 조사의 최종보고는 올해 6월에 보고서로서 정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1차 집계를 기초로 해서 도출할 수 있는 의견이며, 일본 기업의 전체적 의견은 6월에 通産省에서 발표될 공식 보고서를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산성의 양해를 받아 日韓의 경제계 여러분께 향후의 산업협력의 힌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 1차 집계 결과 속보

이번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집계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제약도 있으므로 여러분께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15개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귀 회사는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회답해 준 69개 업체 중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대답한 업체는 45%, 「비교적 중요시하고 있다」고 대답한 업체는 35%로, 약 80%의 업체들이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2)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문제·장벽이 있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까?

80%를 넘는 업체가 「문제·장벽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3)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문제·장벽이 있습니까?

문제·장벽의 내용으로서는 「문제·장벽이 있다」고 대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정책(제도·규제)의 문제점(불비, 비합리성, 불투명성, 자의(恣意)적 운용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절반 가까이가 「노사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5)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일부를 소개합니다.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상품을 인수하지 않는 고객이 많다」(섬유메이커)

「외국인이 거주할 적당한 주택이 적다」(종합상사)

(4) 정책(제도·규제)상의 문제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

「정책(제도·규제)의 문제점」의 내용으로서는 「제도의 불투명성, 자의적 운용」과 「세제」가 가장 많고, 이어서 「수출입규제, 통관규제」, 「제도의 미정비, 갑작스러운 변경」, 「고용·노사관계규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림 6)

(5)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어떤 업종에 대한 参入과 그 절차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일본 외의 외국기업에 부여하는 대우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까? (최혜국대우의 부여)

다른 외국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 바가 있는 업체는 18%였습니다. 느낀 바가 있다고 대답한 업체 중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수입다변화품목에 지정되어 있는 자동차는 일본차만이 수입금지되고 있다. 올해 7월에 개방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인증수속이 복잡하다고 듣고 있다」(미진출 자동차메이커, 상사)

「폐지할 방향으로 간다고 듣고 있지만, 다변화품목으로서 현지생산되고 있는 품종의 수입규제가 있다」(베어링메이커)

「현재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차는 인증상 구미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지 않다」(자동차메이커)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서 소유할 수가 없었다. 투자자유업종일 때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행정지도가 있다」(백화점, 슈퍼마켓)

(6) 한국에 투자하고자 할 때 어떤 업종에 대한 参入이나 절차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비교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까? (내국민대우의 부여)

한국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 바가 있는 업체는 15%였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85%의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과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7) Performance 요구

갓가지 Performance 요구에 관해서는 「그 가능성은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업체가 81%였습니다. 특히 「수출요구(a)」, 「국내판매제한(e)」, 「본사설치요구(g)」, 「공급원제한(h)」, 「연구개발요구(i)」, 「국내자본참가요구(l)」에 관해서는 「그 가능성은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업체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업체가 많은 항목은 「국내조달요구(b)」, 「국내제품구입요구(c)」, 「기술이전요구(f)」, 「자국민고용요구(j)」 등이며, 실제로 부과·강제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업체와, 많은 적든간에 그 가능성을 느끼고 있는 업체를 합하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림 7) 업종별로 보면 전기, 수송용, 일반을 합한 기계제조업에서 「기술이전요구」와 「국내조달요구」를 우려하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8) 국적요구

이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을 갖는 개인을 경영간부나 임원으로서 등용

하도록 요구된 바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요구된 바가 「있다」고 대답한 업체는 2%에 불과하며, 90% 가까운 업체들은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 (9) 사증, 출입국

일본 기업의 관계자 및 그 가족의 입국·체재·노동허가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었다」고 대답한 업체는 6%, 「없었다」고 대답한 업체는 87%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사증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족 모두 함께 여러 차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극히 불편하다. 외국인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은행)

「체재 VISA 기간과 재입국 VISA 유효기간의 극단적 불일치

예를 들어 주재원 체재 2년, 재입국 1년 이내 Multi Visa

동 가족 체재 2년, 재입국 3개월 Single Visa 3개월

Multi Visa로 하여 점검하지 않으면, 체재 Visa 기간과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된다」(메이커)

#### (10) 송금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송금할 때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보증할 것. 일본 기업이 해외로 지불,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해 주기 바란다」고 대답한 업체가 60% 가까이 달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해 주기 바란다」고 대답한 업체를 합하면 90%를 넘는 업체가 그러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림 8) 구체적인 회답을 소개합니다.

「현상으로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 되도록 빠른 시기에 완전 자유화를 바란다」(은행)

「실제로 송금하는데 불편하므로 보증이 있으면 고맙다」(종합상사)

「투자환경요건 중 우선 보증되어야 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메이커)

### (11) 예외조치

한국 정부가, 자국의 안전보장 및 공공질서를 위해 불가결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자국의 안전보장 및 공공질서를 위해 불가결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해」라면 인정한다고 한 업체가 87%, 「공공질서를 위해」서라도 인정한다고 한 업체가 67%였습니다. 한편,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업체는 5%에 미달했지만, 「공공질서를 위해」서라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한 업체는 10% 가까이 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지나 대외자금에 관한 위기에 즈음하여 송금이나 국제자본거래에 있어서의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BOP 세이프티 가드)에 대해서는 「부득이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10% 남짓에 불과하며, 내국민대우는 별도로 하되 최혜국대우 정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한 업체는 45%, 내국민대우의 정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업체는 43%에 달했습니다. (그림 9)

### (12) 특정업종의 유보

日韓間의 투자자유화에 있어서 특정업종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유보업종을 든 업체는 없고 모든 업체가 「전면·완전자유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13) 상호승인

日韓間에서 제품의 기준적합성평가 등 「상호승인」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기 바란다」고 한 업체가 4분의 3,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한 업체가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림 10) 상호승인을 희망하는 구체적 품목으로서는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AV기기, 2륜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상호승인의 전제로서는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규격·기준과 자국의 규격·기준이 조화 적합되고 있음이 불가결하다」(자동차메이커)

「한국의 규격·기준이 일본과 동등함을 확인할 때까지 인정해서는 안된다」(종합상사)

#### (14) 지적재산권

日韓間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보증해 주기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항목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 조금 귀가 아픈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생각한다」  
(건설)

「한국 내에서는 복사상품의 범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현저하며, 그 보호에 대한 의식도 낮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한 보증은 불가결하다」(자동차메이커)

「일본 기업이 안심하고 한국 기업에게 하이테크 기술을 공여할 수 있도록 日韓間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보증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한국산업의 수준향상에도 연결되는 일이다」(일류 메이커)

「기업 CI 로고마크의 무허가 사용의 금지와 가짜물품의 적발 등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자동차메이커)

「복사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제도 있고 중국제도 있다」(전기제품메이커)

#### (1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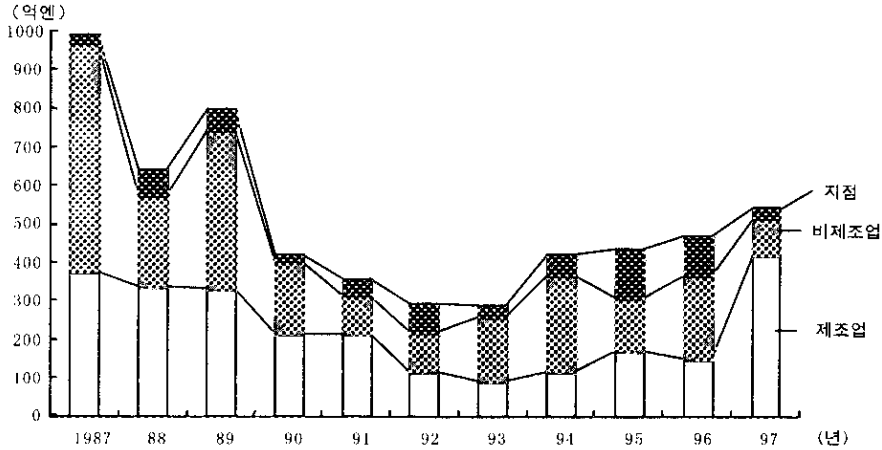
日韓間의 투자촉진을 위해 희망하는 조치로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것은 「연차휴가구입제도의 폐지」, 「퇴직금제도의 재검토」, 「회사법이나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 등이었습니다. 보다 추상적인 희망으로서는 반일감정이 노사분쟁의 해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그러한 감정을 매스컴이나 학교교육이 너무 강조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지적되었다.

이상이 이번 앙케이트 조사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질문항목 모두를 소개드릴 수가 없었고, 회답 기업도 전체의 일부인 69개 업체로서 반드시 일본 기업의 모든 의견을 소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업경영자 여러분은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소개 드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즈음하여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 :

그림 1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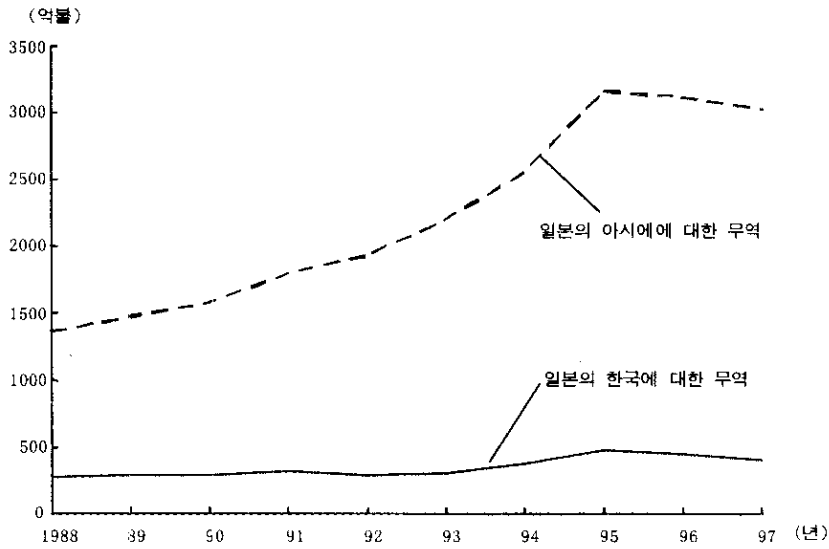
자료 : 大藏省

그림 2 일본의 아시아각국에 대한 직접투자

국가 · 지역	1998 년도		1998 년도 상반기	
	금액(억엔)	구성비(%)	금액(억엔)	구성비(%)
인도네시아	3,085	20.6	876	21.3
중 국	2,438	16.3	600	14.6
태 국	2,291	15.3	977	23.8
싱가폴	2,238	15.0	375	9.1
말레이시아	971	6.5	378	9.2
홍 콩	853	5.7	168	4.1
필리핀	642	4.3	188	4.6
대 만	552	3.7	155	3.8
한 국	543	3.6	241	5.9
인 도	532	3.6	74	1.8
베트남	381	2.5	59	1.4
스리랑카	332	2.2	5	0.1
기 타	89	0.6	8	0.2
아시아 총계	14,947	100.0	4,1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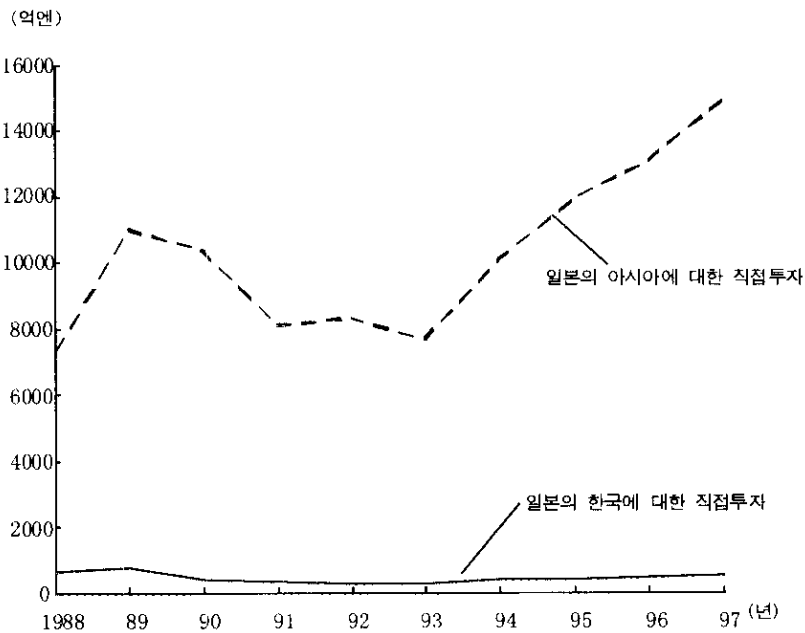
자료 : 大藏省

그림 3 일본의 아시아·한국에 대한 무역(수출+수입)의 추이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그림 4 일본의 아시아·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추이



자료 : 大藏省

그림 5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문제·장벽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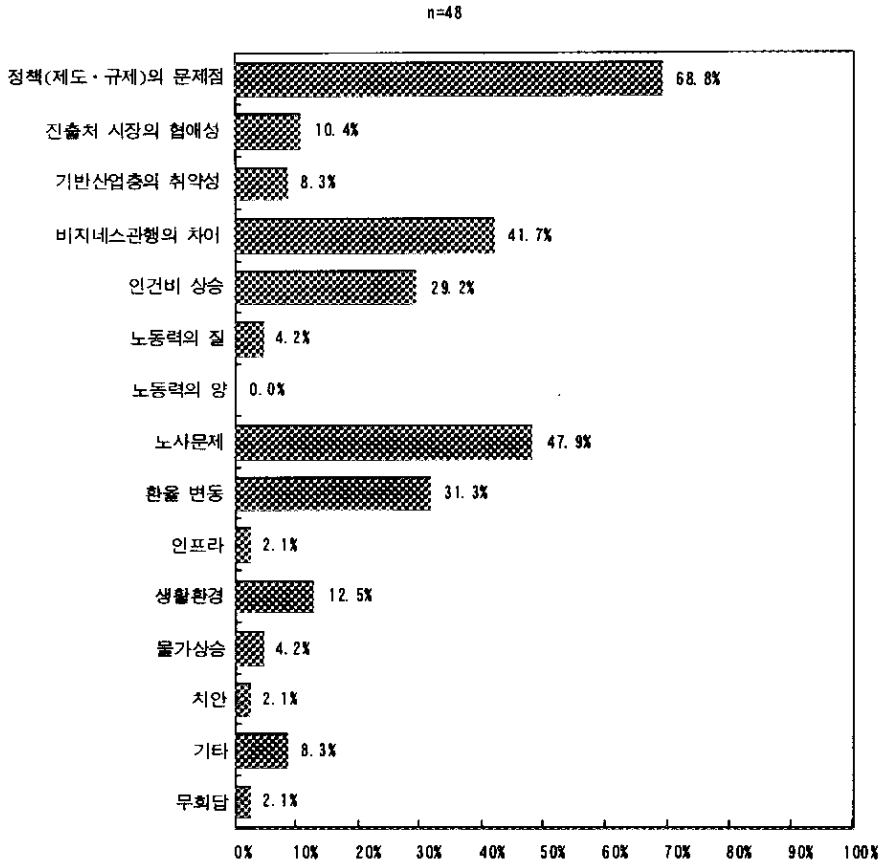


그림 6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정책(제도·규제)의 문제점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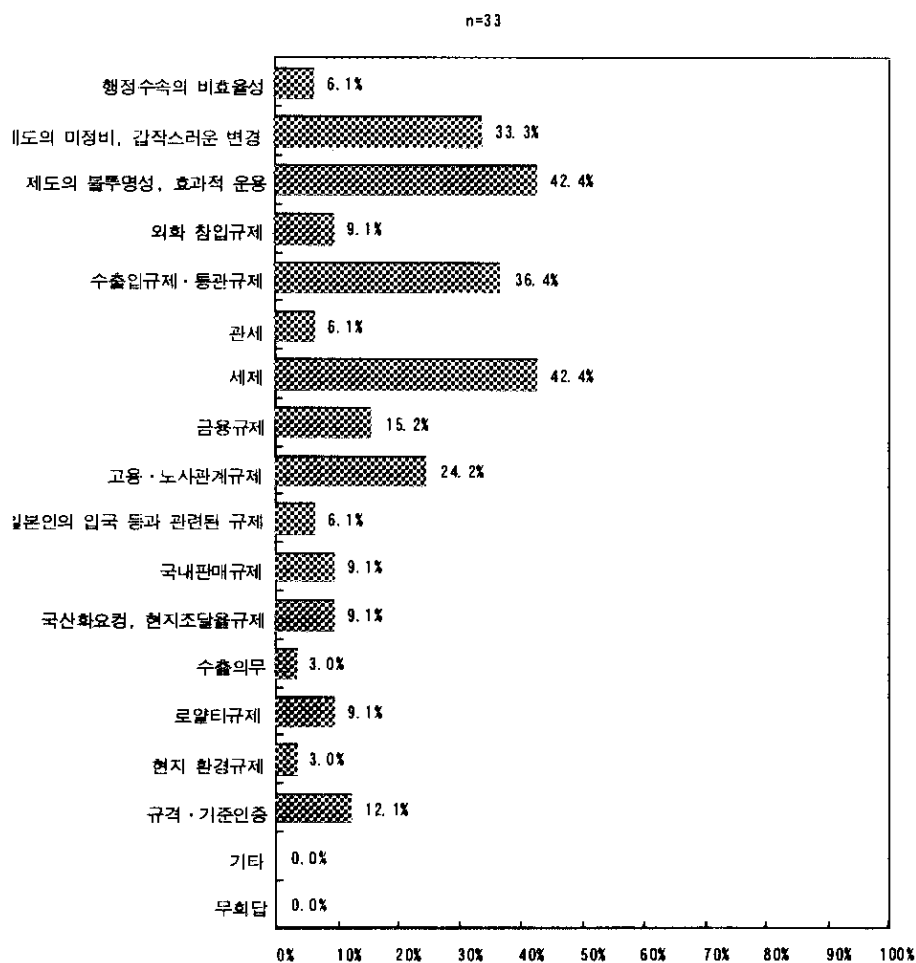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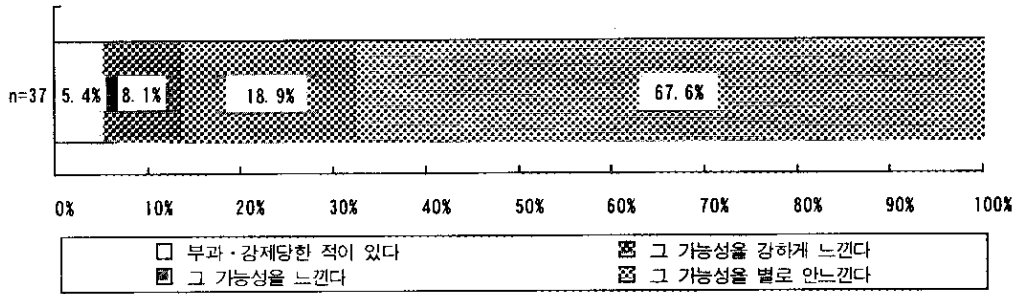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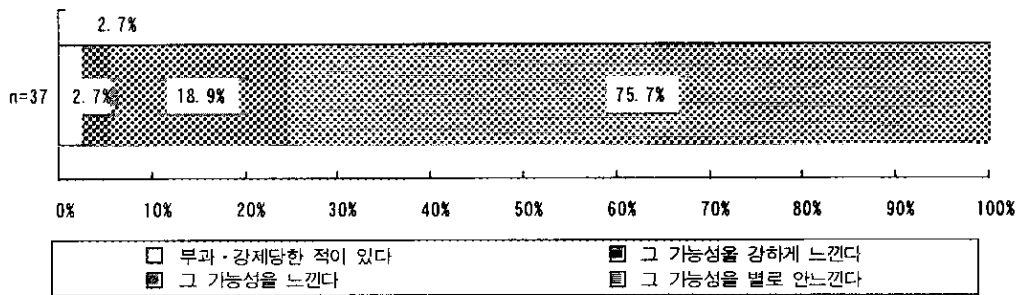


그림7 Performance 요구의 경험·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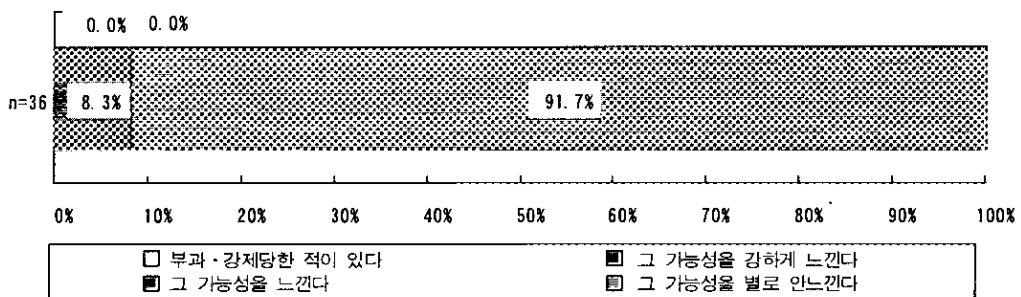
국내조달용 요구 (b)



국내제품 구입요구 (c)



기술이전요구 (f)



자국민 고용요구 ( j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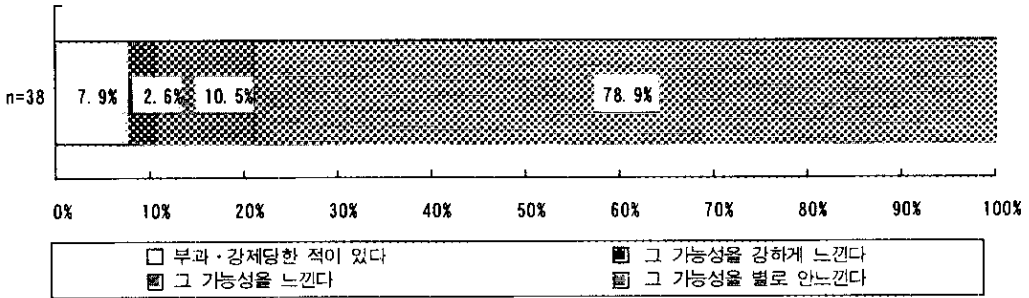


그림8 송금의 자유를 보증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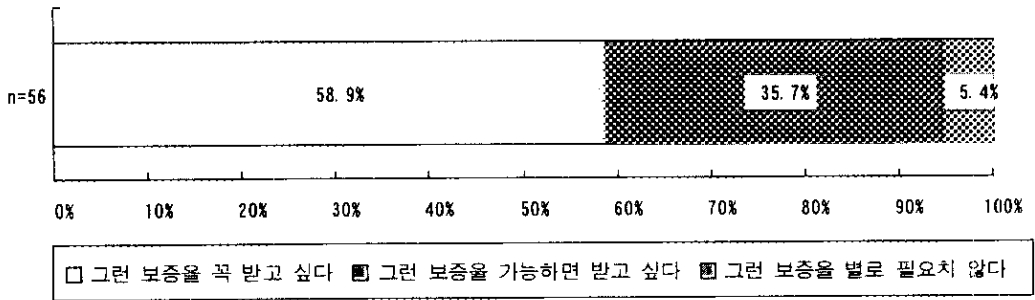


그림9 B O P 세이프가드의 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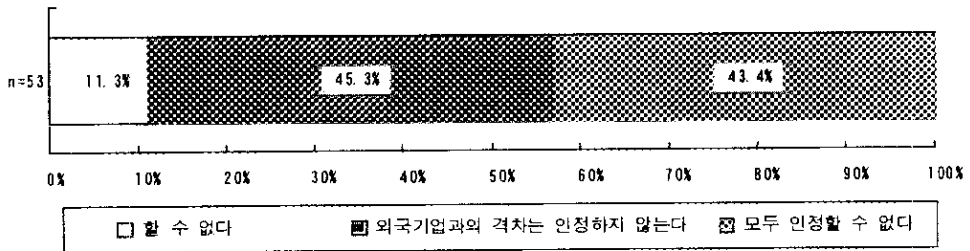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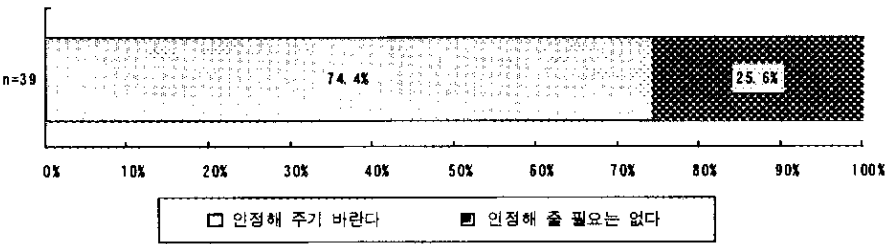


그림 10 상호승인에 대하여



〈第 2 分科會 自由討論〉

(産業協力分野)

##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지에 대한 自由討論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의 투자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투자환경이 180° 바뀌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측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통산성의 1차 조사의뢰 결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만, 우리에게서 많은 아직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조사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양국 정부간에 투자협정이 연내 체결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나온 첫 투자환경조사 보고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2차 추가발표와 최종보고도 보아야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민간인들이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이 주로 일본의 본사에 계신 분들이 대답한 것일 것이다, 현재 여기에 진출해 있는 지사의 여러분들이 180° 바뀐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추가로 전해를 밝혀 주시면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조사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충분한 의견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그러면 일본측 발언에 대한 코멘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비나 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투자를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아주 훌륭한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의 기업 체질 강화를 전제로 양국의 자본 교류는 좀더 활발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보고서 가운데 일본의 대한 투자의



저조 요인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한국이 일본에 가깝다는 지리적인 근접성을 활용하는 것만큼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코스트 면에서 우위가 없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앙케이트 결과에서 한국측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로는 정책 쪽 제도와 규제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노사관계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에서도 몇 번 논의되어 친숙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논의된 사항으로는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 환율의 변동, 인건비의 상승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에 있어서는 최근의 원화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도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로서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진취적인 운영 또는 세제, 수출입관행, 그리고 제도의 미정비 등 이러한 점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단,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20%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수입다변화 품목에서 지정이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보고서 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이에 대해서 일본측에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본측에서는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많은 코멘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기업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백 그라운드 페이지는 반드시 한국의 큰 변화를 충분히 일본측이 인식을 해서 응답을 했는지 어떤지의 여부는 아직 의문이 남은 부분이나,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서 일본측으로부터 오신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 관계자들께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그 동안 환경문제 기계공업 육성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공동 리포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특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투자환경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서와 같이 다방면에 걸친 앞으로 한일간에 투자협정을 맺게 되

면 여러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분야에서 어떤 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협조해서 우리가 상호 인식을 같이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간 베이스에서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볼 때 오늘 여기 열거한 여러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방면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특히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측에서 특히 이런 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그러면 일본측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飯島 英胤 東レ(株) 専務取締役

東レ의 이지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91년부터 한국에서 삼성그룹과 새한그룹, 코오롱그룹, 3개 그룹과 사업제휴 협력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6개사와 합작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비나씨로부터 발표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면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 문세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투자 실체 면을 보더라도 한국측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관행적인 측면이 투자의 장해요인이 된다고 저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대한 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느냐? 결국은 이것은 코스트 퍼포먼스에서 보았을 때, 메리트가 적다라는 면도 있고, 동시에 큰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경제의 펀더멘터즈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 입국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양국이 모두 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무역 입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제 2차 산업, 그리고 제 2차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기술력이고, 인재력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국제적인 마케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일 양국은 결국은 부득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역으로 말했을 때 제 생각은 경쟁관계에 있다 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라든가,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보았을 때 조금 더 경쟁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 속에

서 경쟁과 동시에 공존하는 또 제휴를 충분히 검토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28년 동안 현재도 3개사와 아주 양호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사실은 워낙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다 보니까 사업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 하나는 역시 양 그룹이 이퀄 파트너십으로의 입장을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한다거나 그것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 공영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합작회사는 자본제휴를 통해서 메리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동등한 파트너십의 관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 그룹간의 탑 매니지먼트, 그야말로 사장이나 회장 등 최고경영책임자의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워낙에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무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탑 매니지먼트의 경영철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뢰감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이라던가 마케팅, 기술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관계 이외에 어제든 기조연설에서 나왔습니다만, 인재 교류라든가 인재 육성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여러 가지 예산제도, 인재평가제도, 또는 노무관리, 노사관계, 이와 같은 소프트 측면에서의 교류가 매우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삼성그룹의 매니지먼트의 과장연수를 할 때 당사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양 기업간의 인재육성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현재는 그룹의 탑 매니지먼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꾸준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 그룹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도 삼성그룹과 11번의 폭넓은 글로벌적인 전개를 해나가자는 약속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일본의 탑 매니지먼트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역시 한국의 경영 매니지먼트와 충분한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마음을 털고,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의견교환의 자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 있겠죠.

저희 당사의 6개의 사업 그룹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고, 현지의 합작회사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일본은

역시 굉장히 건전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안정된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과는 일본의 아주 좋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용 문제 리스트럭처링의 문제라는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치열한 노사분쟁보다는 상호 대화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 3자의 기관이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문제해결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건전한 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자의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작사업, 기술교류 이러한 것을 해나가고자 할 때는 역시 지적재산권 문제가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제조 제 2차 산업, 이것은 하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생명과 같은 지적재산권이 확실하게 준수된다 라고 하는 상호 신뢰감이 붕괴되고 말죠. 그러한 것이 없으면 최첨단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문제, 정책문제라기보다는 양자간의 계약을 존중한다는 그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기본계약이라던가 사업계획이라든가 기술공여계약이라던가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던가 많은 계약들이 있습니다만, 이 계약과 관련해서 이 계약을 반드시 준수한다 라는 풍토가 없으면 역시 상호 신뢰감이 붕괴가 되고 말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해나감으로서 좀더 양국간의 기업차원에 있어서 사업확대를 위한 대응을 생각했을 때에는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측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본 앙케이트 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程 勳 仁川大學校 教授

우선 예비나 부장님의 앙케이트 결과 발표는 한국이 현재 일본의 투자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상황에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뜻깊은 보고서였

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양케이트가 어떤 이론보다도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케이트 항목 중에서 5번 내용입니다만,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느낀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백화점, 슈퍼마켓 관계자가 한국이 일본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느냐, 무시를 한다든지 투자 자유업종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다 라고 대답한 점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수리가 있어서는 행정심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일본의 기업을 차별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인정하고 투자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는 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대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양케이트 항목 중에서 7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퍼포먼스 요구와 관련이 되어 가능성을 걱정하는 기업이 많은 항목은 국내조달 요구라던가 기술이전 요구, 그리고 자국민 고용요구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았을 때에는 전기·수송기계, 일반기계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기술이전 요구와 국내조달 요구, 즉 로컬 콘텐츠입니다만, 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실제로 한국경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경제가 일본의 경제보다 덜 성숙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한국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미리 기술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조달이나 현지인 고용을 실행한다면 그러한 요구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한 대답은 한국에 대한 일본측의 협조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비나 부장님은 양케이트 결과 중에서 보다 추상적인 희망으로서 반일감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의 반한감정이라고 할까요? 이 반한감정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양국이 서로 노력을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올해 3월에 있었던 오부치 총리의 방문 등에 의해서 한일 양국간의 감정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호 이해를 위해서 양국의 각계 각층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지금 앙케이트에 대한 한국측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도 괜찮고 앙케이트에 대한 의견도 괜찮습니다. 아카자와 고문님, 부탁드립니다.

赤澤 璋一 (財)機械産業記念事業財團 顧問

아카자와입니다. 4년만에 우리가 서울에 와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양국의 경제상태에 대한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국의 경기 순환이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기순환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의 시기에는 다음의 호황의 기반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형성이 되지 않는 기업은 도태가 되고 어떻게든 생존하고 싶다는 기업은 리스트럭처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자체도 국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기업의 노력이 실행이 되는 결과 다음에 오는 호황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한국의 정책 및 기업의 대응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한국에 와서 받았습시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경제에서 본다면 그 정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고 IMF의 지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대처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환보유고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아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회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91년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은 매우 불황기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GDP 성장률이 지금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약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것은 올해 들어서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머지 7년간은 플러스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97년도 통계이지만 3만 9천달러를 기록할 만큼 국력이 있습니다. 1조 2천억엔을 넘어서는 대외준비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일본이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기업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기업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혁은 매우 근본적이고 아주 힘든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측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을 예방해서 예정시간을 30분 정도 오버하면서 대통령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철학을 나타내는 방향성을 국민적인 목표로서 나타내고 또 그 지도력을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이는 일본의 현역 정치가 중에서도 보기 드물거나 없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회견시간이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외자 도입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자본기술의 협력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일본 기업은 한국에 와서 일본의 국내와 동등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의 검토가 일본측은 JETRO, 한국측은 산업연구원 양측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어제 JETRO 이사장이 모두에 연설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유무역권이라는 것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것을 한일간에 협의를 시작했으므로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1분과 회의에서는 그런 의제가 중심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대단히 훌륭한 앙케이트를 발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오지미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같은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셔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를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한국측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측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도 이런 앙케이트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은 비교생산성의 우위가 없다는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경제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매우 낮은 것은 저도 실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일본기업 안에서는 조금전의 東レ와 같은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한국 기업들에게 아주 심한 대우를 받아서 결국은 철수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도 많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 국내에서 여러 신문, 언론 등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 정신적이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한국의 제도개혁에서 이러한 점이 어떻게 변해나가는가 하

는 것이 실제로 실무에 관계되신 분들 그리고 한국의 기업 여러분들 파트너로 계신 기업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본 기업을 보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국측에서도 같은 이러한 비교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라린 경험 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간이 걸리고 또 실적의 증명이 추가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부디 한국측의 조사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또 일본기업도 따뜻한 눈으로 이런 개혁의 과정을 지켜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의 구상, 자유무역협정의 문제, 우선은 그런 문제를 중요시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본 외자, 즉 일본 자금이라는 것을 보통의 한국측 기업과 같이 취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어느 정도 정확이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본기업의 소리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움직임이 없는가 하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면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의 정책면에 있어서도 조금 저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포함해서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년 안에 한국경제의 진정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은 일본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일본 측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 협력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국측 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양케이트 조사내용을 보면은 단시간에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만, 특히 이 점은 강조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국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진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엔지니어링의 이봉진입니다. 아까 한국측 분이 일본말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본말로 해야 할 것인가 한국말로 해야 할 것인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사 표시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비나씨 양케이트를 저는 일본말로 집에서 사전에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느새 한국이 이렇게 상당히 평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장래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의 일이지만 일본의 어느 하이테크 회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과 합작투자를 위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은 한국의 인재를 활용하고 싶다,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생산투자를 하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아마 양케이트에 빠지지 않는 애로사항을 가진 것이 한 20~25년 전에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이번에 젊은 중소기업인을 만나보니까 옛날 25년 전의 이미지는 모두 날아가 버려 새로운 한국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역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우수 인력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을 하는 사람이 미국의 MBA를 받아온 사람인데 사고에서 합리적이고 이 양케이트에 나오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미국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계약을 하면 계약을 이행하여야 되고, 그것은 자기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파견해서 한국의 기업인이 많이 변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번의 양케이트에서도 조금 나왔다고 느껴보지만 특히 하이테크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양케이트에서 느낄 수 있는 한가지 실망스러운 점은 지금 일본분들은 한국의 개혁이 아주 잘되고 있고, 아주 획기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만, 이 양케이트를 보는 한에 있어서는 제가 예를 든 것과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가 있어서 제멋대로 한다든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이번 IMF 사태를 계기로 전부 퇴출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기업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대기업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첨단기술 그쪽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첨단기술 쪽에 인제는 한국의 IMF로 많은 취직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러한 것에 착안을 해서 한국에 와서 연구소를 만들고, 기업을 일으켜 보고 싶다고 하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들도 일본 동경 제 1증시에 상장되는 회사인데 그러한 레벨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제가 그 분에게 이번 회의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분은 일본의 훌륭한 회사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일본측에서도 일본측 기업을 더 많이 포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참여시켜서 한국을 좀더 이해시키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귀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인재들이 생산현장을 떠나고 심지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하면 한일 양국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앙케이트 조사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거론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부에서는 많이 개선되었구나 하는 분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고 다시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孫 炳 斗 全國經濟人聯合會 常勤副會長

전경련의 손병두입니다. 이번 앙케이트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카자와씨가 대통령을 뵈고 받은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의 우리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이 있었던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많이 변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 자신께서도 변하고, 우리 정부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수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이미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쓰라린 경험은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가 미숙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성숙했고, 산업도 많이 발전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시대에 상황을 맞이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한국 기업의 창업 1세들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일본말이 능통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세 경영자 내지는 지금 젊은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또 구미쪽에 친숙한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그 동안의 한일간의 투자가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일본측에서 볼 때도 일본측 정부의 정책도 한국보다는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드라이브를 한 면은 없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고 이제는 각 지역에 새로운 리즈널리즘으로 뭉치는 입장이라고 하면, 즉 유럽은 유럽대로 뭉치고 북미는 북미대로 뭉친다면 동북아가 하나로 뭉친다고 한다면 우선은 가장 가능하고 확실한 것이 한일간이 뭉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은 동남아에서 화교권 중심으로 이미 뭉쳐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일간에 업종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양국간에 정부 베이스에서 그 투자협정 논의도 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논의도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쪽에서 서로 노력한다면 훨씬 더 정부간의 논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아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때 일본이 갖고 있는 자금과 기술, 한국의 인력과 의욕이 합쳐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중국에 진출을 하고 동남아에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미국기업인들은 한국과 기업협정을 맺는다면 굳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겠다, 중국에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에 투자해서 중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과거에 가졌던 나쁜 이미지를 털어내고 한국과 진정으로 함께 구조조정도 함께 하고, 이러한 아시아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함께 한다는 그런 선린의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기된 Business alliance,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전경련은 전경련 나름대로 정부와 논하겠습시다만, 일본측에서도 통산성이나 재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金 英 大 大成産業(株) 副會長

대성산업의 김영대입니다. 아까 일본측이 한국에서 쓰라린 경험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듣고 저희 회사 경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6개의 합작회사를 일본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모두다 성공을 했고 그 중의 2개 회사는 IMF시대에도 20~30% 이상의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보고서를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좋은 조사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한국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 것 같고 똑같은 문제점을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든지 정책문제든지 세제문제든지 제도의 불투명이든지 한국기업이 지난 50년 동안 똑같이 겪는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일본과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받아 한국과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라는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풀어보면 한국에서도 기업끼리 서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차이,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더 많이 증폭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관행은 이제 표준화 되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더 증폭되지 않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이제까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대기업 사이에 협력이 주도를 했다고 봅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것도 대기업간에 경험했던 것이 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간의 협력이 한계점에 부딪친 것이 바로 무역은 늘지만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기현상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바칩 협력한 것이 중소기업간의 협력입니다.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아직

도 많은 미개척의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간의 협력은 기술을 이전하고 난 뒤 세계시장이 즉시 경쟁자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서로 경계감이라고 할까 경쟁의식이 증폭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갔을 때는 쓰라린 실패를 했을 경우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나쁜 기업들이 또 사회에 가서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이 문이 닫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파트너를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국간의 오랜 동안의 경험과 서로 정보교환으로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양국간의 협력에서 파트너를 서로 찾았을 때 파트너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의 경력,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잘못된 파트너를 선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양국간에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간이 협력하는 것을 하나의 벤처 캐피탈의 탄생으로 생각하시고 서로 도와주는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서 제가 만든 회사들은 전부터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회사는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을 해서 '97년도에는 한해의 순수익이 30억불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올바르게 자르면 자체 파인낸싱 능력까지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소규모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을 했을 때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리저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금융지원이라든지, 벤처캐피탈의 지원이라든지, 또 성공했을 때, 예를 들면 한국 증시든지 일본 증시에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든지 특히 벤처캐피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유예해 주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한국 기업도 이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경험을 나누어서 중소기업의 협력분야를 넓혀 가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한 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기공압기계 대표이사입니다. 앙케이트 조사내용을 대단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본측에 대해서 제가 앙케이트에 관한 질문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공압기계 분야의 제조설치 A/S를 하고 아울러 약간의 국제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하고도 다소간 거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통문제에 대한 것이 조금 앙케이트에 소개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앙케이트 항목이 15개였는데 더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유통문제가 들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개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에 육박하는 세계 최선진국인데 간혹 신문이나 일본에 가서 보면 구미 선진국이 일본의 유통시장에 대해서 나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통시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가 대충 짐작해도 일본이나 구미 사람들이 한국 유통에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 아니냐 하는 아주 옛날 식의 구조가 현재 한국 유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한일간에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은 기술과 자본, 공장건설 이런 쪽에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유통문제를 소홀히 하고 과연 기술과 자본 문제가 원활히 풀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한일간의 많은 회의 중에서 거론되어져야 하고, 대충 이러 이러한 이야기는 나와야 할 것 아니냐, 한국 사람은 반대로 저희 같은 조그마한 비즈니스맨들은 일본이 어떠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이 유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사를 해서 “금융업입니다” 미국에 모 은행은 한국에 와서 소매 금융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가지고 갔는데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와서 소매 금융업을 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업에 대해서 양국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더욱이 일본측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국 사이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 유통문제 때문에 양국의 발전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가지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는 업종 중에도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 왜 이 얘기가 빠져 있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

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에서 포천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가 일본 돗토리로 안간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선원이 바다에 던진 라면봉지가 일본 해안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개의 예인데 일본의 통산성에서 낸 앙케이트라고 보아지는데 이 유통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고맙습니다. 이 앙케이트 조사의 커버리지가 대상기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전모를 알기 위해서 차후 연구결과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벤처·중소기업 문제, 유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들은 빠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 예비나씨에게 그런 점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측 오지마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해 주십시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일본측 앙케이트에 대해서 한국측 여러분들로부터 활발한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일본측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휴식시간에라도 또 여러분들 사이에 더 많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일본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제도 개혁이 매우 크게 진전이 되었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켜보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다져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일본측으로부터의 전언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한일 양국의 산업이 협조해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이상으로 제2분과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한일 양국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통역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표시로 박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合 同 分 科 會

(交流增進分野, 其他)

〈共同議長〉

韓國側：李 奭 熙 (株)大宇 相談役

日本側：大庭 浩 川崎重工業(株) 取締役會長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 韓國의 投資環境 變化

- 21世紀 韓日 經濟關係의 展望과 더불어 -



產 業 資 源 部  
貿易擔當次官補 吳 盈 敎

### 1. 인 사 말

- ☐ 존경하는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계 대표 여러분,

저는 이번 제3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변화된 투자환경과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 특히 금번회의는 지난 10월 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얼마전 오부치 게이조 총리께서는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가올 21세기에는 동북아지역에서도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한일경제동맹」을 형성하자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 ☐ 본인 또한 21세기에는 양국관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국의 경제계 대표여러분들이 먼저 양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에서부터 제3시장에서의 전략적 제휴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양국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오늘의 회의에서 그런 차원의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2. 한국 투자환경의 개선방향

- ☐ 지난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민 방문시 우리부는 민관합동의 투자유치사절단을 구성하여, 동경과 오사카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데, 그때 일본 경제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여러분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은 사상최고의 투자유치액(89억불)을 기록하였고, 특히 일본의 對韓투자는 전전년에 비해 89%나 증가한 5억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무역수지 흑자와 더불어 한국을 외환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 따라서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첫째, 한국에서의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이 영업수지 면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다 매력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외국투자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제도적인 면에서도 국민정서적으로도 외국투자기업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한국경제의 전망이 확실하고 안정적이라는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3. 구조개혁을 통한 영업환경의 변화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정부가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이야말로, 경영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질서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큰 투자환경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산성악화, 금융 부실화, 도덕적 해이 등의 구조적 비효율성의 문제는 비단 한국경제의 앞날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요인도 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구조개혁의 방향]

☐ 한국정부는 기업, 금융, 정부부문, 노동시장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기업부문에서는 [구조개혁 5대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독려하고 있고,
- ② 금융부문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우량은행의 탄생 등을 통해 금융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 ③ 정부부문에서는 조직·인력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 ④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 등의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기업 구조조정]**

☐ 우선 기업부문부터 말씀드리면,

- '98. 1월 정부와 재계간에 합의한 5대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5대 개혁과제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사업부문의 결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강화

- 5대제별은 지난 12월에 마련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고, 6대제별 이하 및 중견기업은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99년말까지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수준까지 개선되고, 주력업종 중심으로 기업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금융부문의 구조개혁]**

- ☐ 한국정부는 '98. 4월 금융구조개혁 기본방향을 설정한 이후, 총 64조원의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 하에 부실채권 매입, 중자지원 등 현재까지 42조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에 뒤진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하고, 부실의 책임도 주주, 경영진, 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분담토록 하여 自律과 責任이 함께 하는 市場規律의 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98. 6 BIS비율 8%미달 은행 중 5개 은행퇴출, 7개 조건부 승인
  - '98. 9 금융산업구조조정법 등 금융구조조정관련 13개 법률 재개정
  - '98. 12 제일은행을 미 New Bridge Capital사와 매각계약 체결
  - '99. 1 국민·장신, 하나·보람, 상업·한일은행간 합병
  - '99. 2 서울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에 매각기로 결정
- ☐ '99년 중에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수익성과 생산성 등 상업적원리에 의해 금융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고, 건전성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재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 **[정부 구조개혁·공기업 민영화]**

- ☐ 한국은 작년과 금년에 걸쳐 중앙정부의 기구와 인원을 대폭 축소개편해 오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구와 인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 또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포철,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개혁]

- ☐ 한국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97년 및 '98년 초에 노동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삼자협력체제를 발전시켜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주요 대기업·공기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노사분규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산업현장」이 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은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 4. 외국인 투자제도의 변화

### [외국인투자자유화]

- ☐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는 한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례 없이 적극적인 자유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 ☐ 그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 ① 외국인에 대한 업종개방을 확대하여 총 1,148개 업종 중 1,117개가 개방됨으로써 업종 개방율이 98.9%에 이르게 되었고,
- ② 자본시장을 자유화하여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가 확대되었고, 국·공채, 특수채를 포함한 모든 공·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완전히 자유화되었습니다.
- ③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여, 종전의 외환관리법을 외국환관리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금년 4월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는 대부분 자유화될 예정입니다.

④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자유화하여, 98년 5월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 (hostile M&A)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M&A를 자유화하였습니다.

⑤ 외국인의 토지취득규제를 완화하여, 98년 6월말부터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토지취득과 관련한 제한이 폐지되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자유화의 주요 내용>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업종개방 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상반기중 30개업종 추가개방 확대</li> <li>- '98. 4. 1 : 건물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등 10개 업종 개방 확대</li> <li>- '98. 5. 8 : 토지임대업 및 개발공급업 등 20개 업종 개방 확대</li> </ul>	1,148개업종 중 1,117개 업종 완전 개방 (자유화율 : 98.9%)
자본거래 자 유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상장회사 및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한 주식투자한도 폐지 *기존 : 1인당 50%, 종목당 55%</li> <li>○ 국공채, 특수채를 포함한 모든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유화</li> <li>○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발행 상품 (CP 등)</li> <li>- 금융기관 발행상품 (CD 등)</li> </ul> </li> <li>○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장기(1년 이상)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 전면 자유화</li> </ul>	'98. 5. 25 시행  '97. 12. 30 시행  '98. 2. 16 시행 '98. 7. 1 시행  '98. 7. 1 시행 1년 미만은 '99. 4. 1부터 자유화
국내기업 M & A 자 유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mp;A 전면 허용 *기존 : 우호적 M&amp;A만 허용 · 33% 이상 취득시 당해기업 이사회 의 양도 결의 필요</li> <li>○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상장주식 25%이상 취득시 발행주식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토록하는 제도</li> </ul>	'98. 5. 25 시행  '98. 2월 시행

<외국인 토지취득의 규제완화>

구 분	기 준	개 선
외국법인 토지취득	○토지용도 - 제조법인 : 공장용지 등 실수요 범위 - 비제조법인 : 영업활동부지, 사택지	○용도·면적제한 폐지 (내외국법인 동등대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체류기간이 5년이상인 비자소지자 만 허용(사실상 華僑만 대상) ○주거용지 200평, 상업용지 50평, 주상복합용지 200평 범위내 취득 허용	○내외국인 동등대우
취득절차	○계약체결전 사전허가	○계약체결후 신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

☐ 한국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9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을 통해 한국정부는 투자제도를 수요자인 외국인 투자자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민원신청시 구비서류를 기존 69개에서 22개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기관도 기존의 외국환은행 본점에 한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외국환은행의 본·지점, KOTRA의 본사(외국인투자지원센터)·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고도기술 265개→446개), 그 감면기간도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대상으로 기존의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등록세가 추가 되었으며, 감면기간도 지방자치단체가 8~15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세감면의 확대>

구 분	기 준	현 행
감면대상 조 세	○국 세 : 소득세·법인세 ○지방세 :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국 세 : 소득세·법인세 ○지방세 : 현행, 등록세 추가
감면기간 및 감 면 율	○국세 : 8년(5년 100%, 3년 50%) -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은 3년 100%, 2년 50% ○지방세 : 8년(5년 100%, 3년 50%) -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의 경우 5년 50%	○국세 : 10년(7년 100%, 3년 50%) ○지방세 : 지자체가 조례로써 감면기간(8~15년 범위내)과 감면을 확대 가능
감면대상 사 업	○고도기술수반사업(256개 기술) ○수출자유지역 입주시	○고도기술수반사업(446개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70여개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용지 등을 취득할 경우에 지원되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가 지자체의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임대기간도 종전의 20년에서 국·공유재산 공히 50년(추가연장 가능)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그리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효과, 외국인투자의 규모, 입주지역의 경제여건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One-Stop Service구축]**

- ☐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 4월 KOTRA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종합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 신고접수 등 민원사무에 대한 직접처리 및 대행처리, 외국인투자관련 상담 및 안내,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조사, 애로접수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5. 한국경제의 동향 및 전망**

### **[동향]**

- ☐ 한국은 '98년 중에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경주한 결과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확충되었고,

- 환율(원/\$) : ('97. 12) 1,965 → ('99. 1) 1,177
- 회사채(%) : ('97. 12) 31.1 → ('99. 1) 7.9
- 경상수지(억불) : ('97년) △82 → ('98년) 400
- 외환보유고(억불) : ('97. 12) 89 → ('99. 1) 501

금년 1월부터 Moody's, S&P, FITCH IBCA 등 해외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 그리고 '98년 11월 이후 산업생산 및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어음부도율이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회복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산업생산증가율(%) : ('98. 1)  $\Delta 10.8 \rightarrow$  ('98. 8)  $\Delta 11.8 \rightarrow$  (11월) 1.1  $\rightarrow$  (12월) 4.7  $\rightarrow$  ('99. 1) 14.7
- 수출증가율(%) : ('98. 1)  $\Delta 0.4 \rightarrow$  (8월)  $\Delta 12.0 \rightarrow$  (11월) 1.1  $\rightarrow$  ('99. 1) 3.7
- 어음부도율(서울,%) : ('97. 12) 1.95  $\rightarrow$  ('98. 1) 0.42  $\rightarrow$  (12월) 0.13

## [전 망]

- ☐ 한국정부는 구조조정을 금년 중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재정지출사업은 상반기에 전체의 7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 ☐ 이러한 구조조정 및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금년도에 한국경제는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2000년에 4~5%의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6.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의 전망

- ☐ 한일경제인 여러분!

세계는 지금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격변기에 있습니다.

WTO 창설 등 세계자유무역을 향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미국중심의 북미자유무역지대 결성이나 유럽의 단일통화권 출범 등에서 보듯이 배타적인 지역블록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반면에, 동북 아시아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협력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등을 통한 세계자유무역 추진도 답보상태에 있어 미국·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일본의 뜻 있는 경제전문가들은 양국간의 투자·무역·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 구체적인 출발선이 지난10월과 금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친 양국정상의 공동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과 일본은 호혜평등의 세계자유무역을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하지만, 지역 블록화의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국간의 향후 협력관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자협력]**

- 지금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단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와 일본통산성은 제1차 「한일 투자촉진협의회」를 지난 12월 5일 한국에서 개최하여, 일본기업인 여러분이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데 느끼는 애로사항을 양국 정부와 민간대표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바 있고,

금년에는 10월에 동경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일본기업인 여러분의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양국은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현재 실무적인 접촉을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 투자촉진협의회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무역원활화]**

- ☐ 21세기에 양국간 자유롭고 바람직한 무역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지금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가고시마 각료회담에서 합의된 “21세기 한일 경제관계 연구회”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자유무역구상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는 상호인정협정 체결과 표준분야에서의 조화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무역환경을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 한편, 한국정부는 그 동안 많은 일본기업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온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금년 6월에는 전면 철폐하는 등 양국 무역을 원활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하여, 일본도 한국으로부터의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씩 축적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보다 “자유롭고 긴밀한 무역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협력]**

- ☐ 양국간 문화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양국정상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영화, 만화 등 일부 문화상품들은 이미 수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 한편 우리부와 일본 통산성이 다가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 상대국에서 대규모 EXPO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 행사는 무역·기술 전시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행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 입니다.

- ☐ 이와 같은 문화분야의 협력은 장차 양국간에 지식기반산업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21세기 동북아 번영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투자·제휴 희망]**

- ☐ 양국경제인 여러분!

양국정부가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듯이, 한일 양국기업이 전략적인 보완관계에 있는 분야를 찾아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 ☐ 이와 아울러, 일본기업인 여러분들은 한국진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 지금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국경제의 미래는 기본적으로 밝다고 봅니다.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며,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 경제를 리드해 나갈 때 21세기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 輸銀의 對韓金融支援의 實績과 日韓 Business alliance 支援構想



日 本 輸 出 入 銀 行  
營業第1部長 波多野琢磨

방금 소개받은 일본수출입은행의 波多野라고 합니다. 제31회 일한·한일경제 인회회가 이렇게도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축하드림과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양국의 비즈니스 리더 여러분 앞에서 저희의 평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輸銀의 대한금융지원의 실적과 일한 Business alliance 지원구상」이란 주제로 작년래의 일본수출입은행에 의한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현재 검토를 추진중인 신 宮澤구상 아래서의 신규금융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생각합니다.

### 1. 輸銀의 對韓금융지원 실적

일본수출입은행은 1951년이래 1980년대 중반 경까지 주로 일본기업의 수출안건에 대한 사플라이어즈 크레딧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항종합제철소(POSCO)의 설비투자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약 3,200억엔에 달하는 용자를 공여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세

계의 톱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한 POSCO에 대한 용자는 일본수출입은행을 통한 일한협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87년 이후 약 10년간은 한국의 외환거래규제 등 요인도 있어 신규 용자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1997년 말의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다시 협력의 기회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말 이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한국의 민간은행에 의한 국제시장에서의 외화자금조달이 곤란해지는 등 요인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무역금융이 위축되어 공업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자본재 등의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공무역국인 한국에 있어서 공업용 원재료와 자본재의 수입은 불가결한 것입니다만, 이들 수입 중 약 21%를 차지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작년 1/4분기에는 전년대비로 39%나 대폭 감소되어 한국 국내의 공업용 원재료의 재고는 통상시의 3개월분에서 1개월분을 하회하는 위기적인 수준까지 감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의 공업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및 자본재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회복을 기하기 위해, 1998년 5월에 한국 민간은행이 발행한 대일 수입에 대한 신용장의 결제자금으로서 총 10억달러 상당의 엔화의 용자를 한국수출입은행에 공여했습니다. 저희 용자가 있는 후 미국,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의 수출신용기관도 크레딧 라인이나 보증 등의 공여를 통해 바이라테랄 차원의 무역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용자에 이어 일본수출입은행은 작년 10월의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시에 일한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실체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을 촉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액 약 30억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공여하겠다는 의향이 小淵 수상으로부터 제안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금융지원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타이드론에 의한 중소기업섹터와 에너지섹터에 대한 지원 약 23억달러 상당의 엔화와 수출금융, 해외투자금융에 의한 일한 비즈니스지원 약 7억달러의 공여에 관해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것입니다.

지난번의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의 중소기업 제조업의 생산지수가 전년 평균치 대비로 약 60% 수준까지 저하되는 등 한국의 중소기업섹터는 극히 심각한 영



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섹터는 한국 전체의 약 70%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침체는 한국의 고용정세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한국 정부는 기업개혁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최 중요정책 과제로 삼아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용자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산업 및 민생의 중요기반인 전력과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로부터 용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에 대해 올해 1월에는 한국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중소기업섹터지원 안타이드론 13억불 상당의 엔화를 공여하였으며, 나아가 올해 2월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안타이드론 8억불 상당의 엔화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안타이드론 2.5억불 상당의 엔화를 각각 공여했습니다.

각서의 안건 중에서, 수출금융, 해외투자금융에 의한 일한 비즈니스지원에 관해서는 작년 12월에 POSCO에 대한 바이어즈 크레딧 약 300억엔을 이미 공여했으며, 나머지 해외투자안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입니다.

## 2. 신 宮澤구상 아래서의 추가 금융지원

방금 소개드린 각서와 관련된 용자는 작년 10월에 발표된 아시아 외환위기지원에 관한 신구상, 소위 신 宮澤구상에 입각해서 공여되는 것입니다만, 올해 들어 이 구상 아래서의 새로운 금융자원으로서 한국의 산업을 대상으로 한 안타이드론에 대한 요청이 한국 정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론은 한국의 내수진흥을 촉진하고 실체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을 도모하여 나아가서 기업개혁 등 한국내의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일한 양국 산업계 상호간의 협조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국내의 외자도입을 위해 필요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자본 정비프로젝트나 환경보전·에너지절약 관련프로젝트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금 및 일본기업과의 Business alliance 구축·강화를 추진하려는 한국기업에 대한 금융 면의 지원으로서, 한국의 중요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을 경유해서 총 1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공여하는 것입니다. 이 론에 관해서는 이미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서 기본용자조건에 대해 합의를 보고 있으며, 3월 20일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小渕 수상으로부터 공여

에 관한 의향이 표명된 것을 바탕으로 같은 날에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서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는 융자의 조기실시를 향해 교섭을 가속화시켜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3. 日韓 Business alliance 지원구상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안타이드론에서 언급한 日韓 Business alliance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의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한 양국의 정치관계는 과거에 유래 없던만큼 양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金 대통령 방일시의 일한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21세기를 향한 새 일한 파트너십」의 정신과 이에 입각한 행동계획에 따라서, 21세기를 겨냥한 양국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호협력관계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한 양국의 상호협력관계를 보다 강고하며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호한 정치관계에 더하여 비즈니스 차원의 교류를 보다 더 긴밀화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도입, M&A 해금 및 외국투자촉진법의 시행 등 한국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외자도입방안이나 기업개혁 등 구조조정의 진전 및 원화 약세로 인한 저렴감도 요인이 되어 1998년의 외국으로부터의 對韓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로 27% 증가된 88.5억달러로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의 일본으로부터의 대한직접투자액은 5억달러 정도였지만, 전년대비 89.1%의 증가를 나타내는 등, 종전에는 무역거래가 주체였던 일한 양국간의 비즈니스교류가 질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외국기업의 기술, 자금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국내의 기업개혁, 산업재편을 추진시켜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산업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여 일본의 기업·산업계가 한국의 기업개혁의 움직임과 적극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 한국의 기업·산업계와의 사이에서 아시아시장을 시야에 둔 협력을 도모해 나가게 된다면, 일본수출입은행으로서도 그러한 일한 협력의 움직임을 지원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일한 양국의 정부차원에

서는 작년 10월의 일한 정상회담 및 11월의 일한경제 각료간담회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12월에 관만합동 일한투자촉진협의회가 발족되어, 올해 2월에는 일한투자협정의 체결협상이 시작되어, 이번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일한 경제 Agenda 21 속에서 일한투자협정교섭의 가속화에 합의하는 등 양국 산업계의 비즈니스교류의 새 움직임을 촉구하는 환경이 정비되어가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상인식 아래 저희로서는 일한 양국의 기업이 함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산업계의 주도하에 국경을 초월한 산업협력이 이루어져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는 일한 기업간의 합작사업, 업무 제휴, 기술 제휴, 주식의 상호소유, 제 3국에서의 시장협력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을 경유한 중장기자금을 공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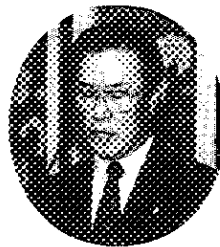
다만, 당연히 업계에 따라서는 어려운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안건의 선정·실시에 있어서는 어떤 업계를 선택할 것인가를 충분히 음미한 후에 일한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안건을 선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건 선정에 있어서는 일한 양국의 산업계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있는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일한 양국의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서 어드바이저리 코미티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Business alliance의 콘셉트 검토와 대상후보 안건으로서 어떤 안건이 바람직할 것인가 등을 의논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한 Business alliance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향후 일한 양국의 경제계에 계시는 여러분들과도 의논을 해 나가면서 자세한 내용을 정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용자를 통해 미력이나마 저희 일본수출입은행의 활동이 향후 일한 양국의 우호, 친선, 상호이해 추진에 있어서 일조가 되었으면 더 이상 없는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 APEC 投資博覽會 (開催意義와 期待效果)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外國人投資支援센터 所長 白昌坤

방금 소개받은 KOTRA 본부장 백창곤입니다. 지금부터 APEC 투자박람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개최의의, 행사개요, 주요행사, 부대행사, 추진현황, 기대효과, 고려사항 등 총 7개 분야입니다.

먼저 개최의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최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제6차 APEC 정상회담시 金大中 대통령께서 APEC 투자박람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일본의 오부치 총리 등 전 회원국 정상들의 찬성으로 APEC 정상선언문에서 동 제의를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APEC 투자박람회는 21세기를 맞아 APEC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APEC 회원의 투자 및 비즈니스환경을 전세계 잠재투자가에 소개, 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 APEC 회원전체의 GDP는 약 17조달러로 전세계의 62.6%, 교역량은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PEC 투자박람회의 개최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APEC 투자박람회의 행사개요를 보면 금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코엑스 전시장 및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The New Asia-Pacific : Investors' Choice for

the 21st Century.”의 주제로 거행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그림은 APEC 투자박람회가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다음은 주요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투자전시회, 회원별 투자환경설명회, 저명인사 초청특별강연 등 세 가지 주요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투자전시회는 6월 2일에서 5일까지 코엑스전시관에서 21개 APEC 회원이 회원개별전시관을 구성, 운영하게 되며, 그 외에 ADB, WORLD BANK, UNCTAD 등의 국제기구가 후원기관으로 홍보부스를 마련, 전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투자전시회는 개별회원관에 각 회원의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가 전시될 것입니다. 자료는 전시회장내 배치도로 일본은 200S/M 규모로 참가, “L”과 “M”에 위치할 예정이며, 참고로 한국, 일본, 러시아는 200S/M, 나머지 회원국은 100S/M 규모로 참가 예정입니다. APEC 회원국들은 6월 3일과 4일에 각 회원별로 개별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며, 전시관 운영과 더불어 회원국별 투자제도, 투자환경을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6월 2일과 3일에는 래딩대학의 Dunning 교수, 토요타자동차의 토요타 쇼이치로 회장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와 CEO 등을 연사로 초청, 저명인사 초청강연회가 개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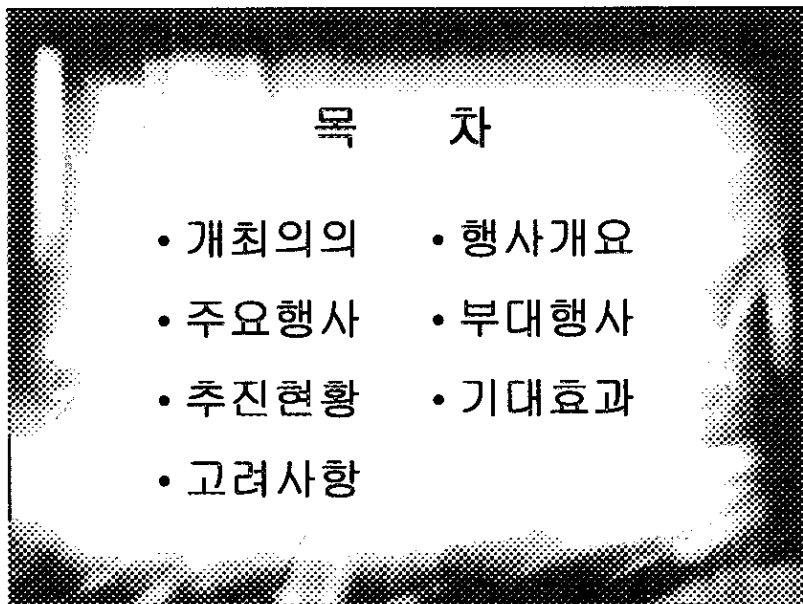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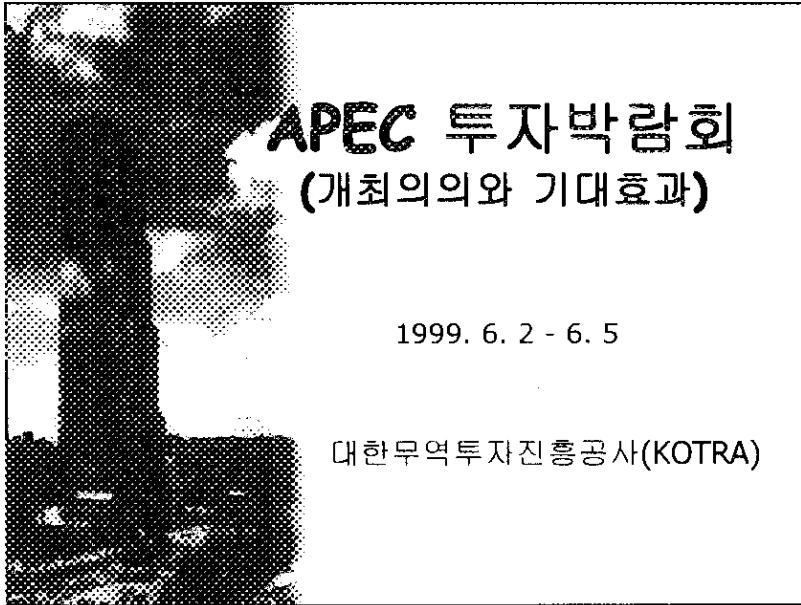
주요행사 이외에 주최측이 마련한 부대행사로는 개막행사, 문화예술공연, 그리고 사이버마트 운영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개막식 전야행사로, 환영리셉션은 6월 1일 오후 6:30부터 사절단 및 잠재투자가 1천여명을 모시고 호텔인터콘티넨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개막식은 6월 2일 11:30 전시장 입구에서 Tape-Cutting 행사가 거행되고, 개막식 Tape-Cutting 행사에 이어 개막기념 오찬이 12:00부터 14:00까지 인터콘테넨탈호텔에서 회원대표 및 잠재투자가가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각 회원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예술공연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전시장내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현재 회원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전시장과는 별도로 인터넷상에 투자유치희망기업과 잠재투자가가 사전 상담이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5월말에 사이버마트로 전환되어 가상전시관을 볼 수 있고, 실제 행사 시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행사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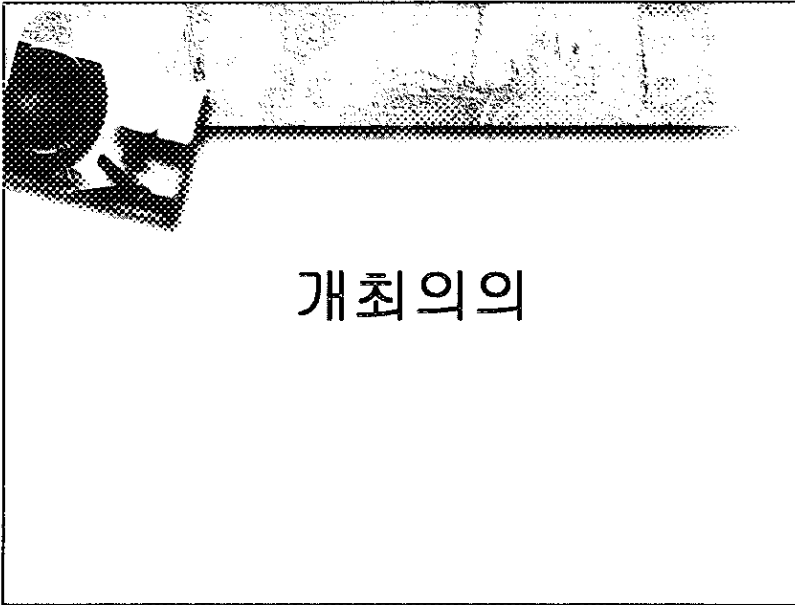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

저 APEC 투자박람회에는 21회원 모두의 참가가 확정되었으며, 각 회원별로 정부 관료, 투자관련기관, 투자유치희망기업 등이 참가, 전체적으로는 약 1,000명이 내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PEC 투자박람회 주관처인 KOTRA에서는 Circular Letter 발송, 대통령 명의의 초청서한 발송, 일어 등 6개국 언어로 제작된 행사홍보 팸플렛의 제작, 배포, 전문 PR에이전트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약 2,000명의 잠재투자자들이 동 박람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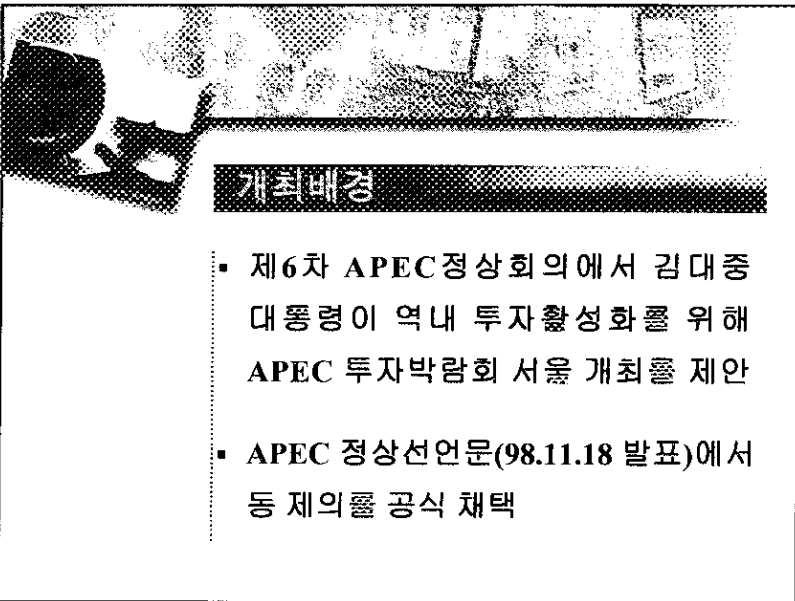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전세계에서 3천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동 행사의 참가가 주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페루 등 작년 말 새로이 가맹한 국가를 포함, APEC 전회원이 참가하는 금번 APEC 투자박람회는 한 자리에서 APEC 21개 회원의 투자환경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커다란 메리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러시아, 중국 등의 공기업 민영화프로젝트를 포함, 최적 투자프로젝트 발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각 회원의 새로운 투자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잠재투자가 및 정책결정자와의 인맥구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APEC 투자박람회에는, APEC 중심국가인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투자매물의 등록 및 전시와 함께 다수의 잠재투자자의 내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6월 2일 APEC 투자박람회에서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라며, 귀국하셔서 주위의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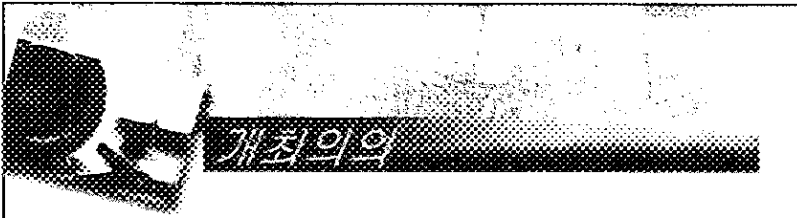
## 개최의의



### 개최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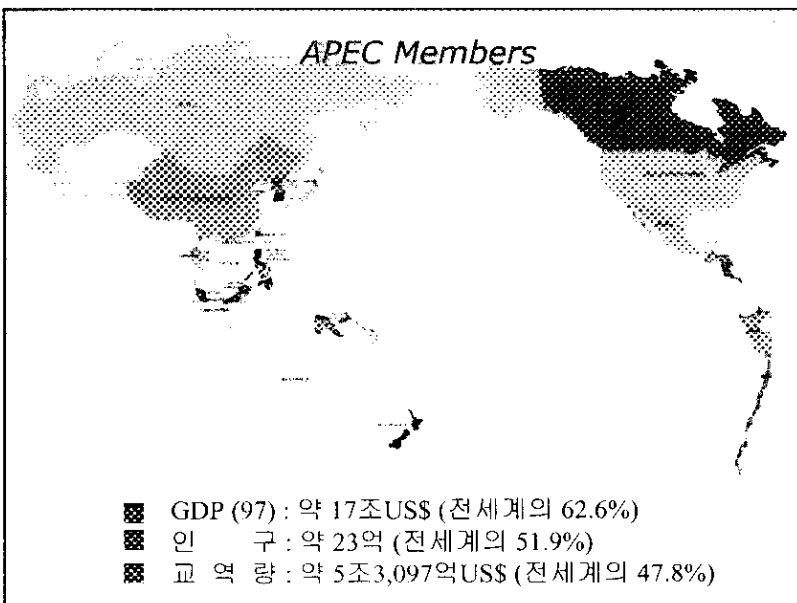
- 제6차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APEC 투자박람회 서울 개최를 제안
- APEC 정상선언문(98.11.18 발표)에서 동 제의를 공식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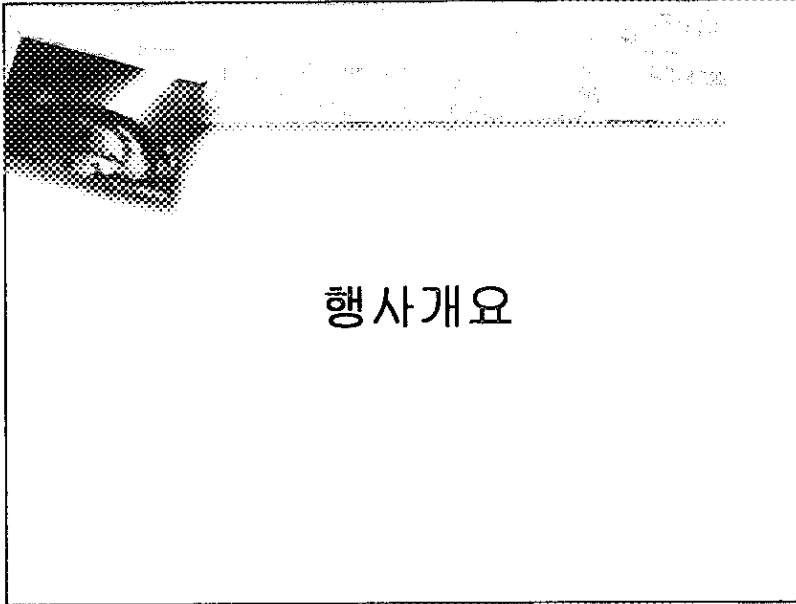





### 개최의의

- 21세기를 맞아 APEC지역의 중요성 부각
- APEC지역의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소개기회 창출
- 동 지역에 대한 투자가의 신뢰감 형성 및 투자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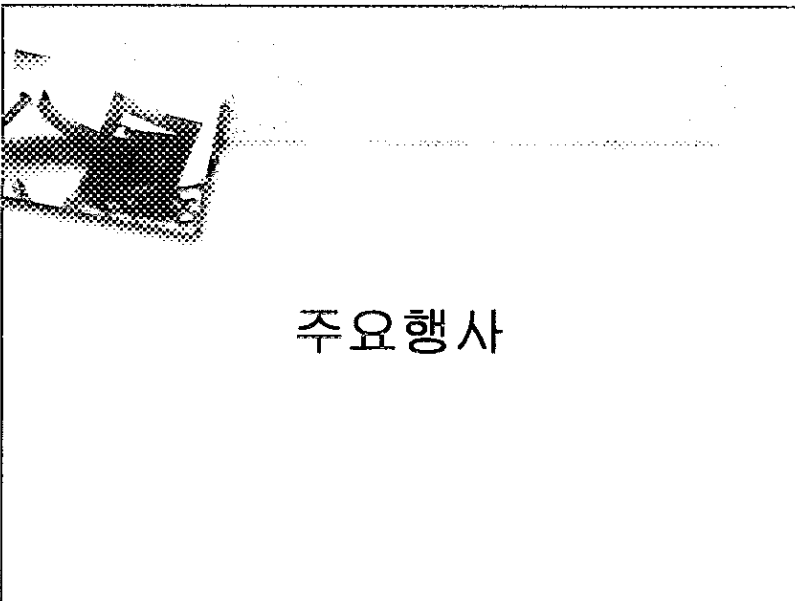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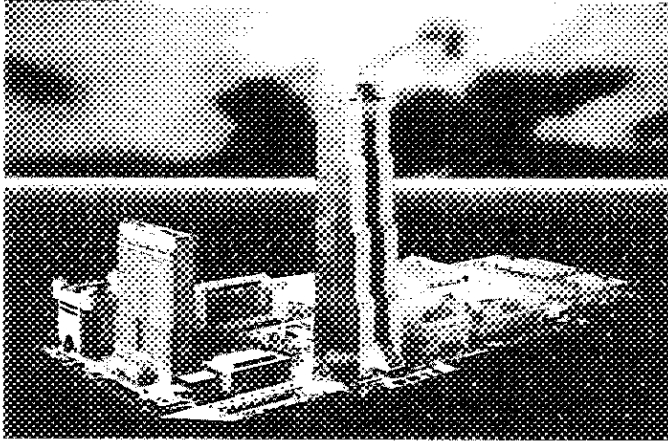


## 행사개요




### 행사개요

- 명 칭 : APEC 투자박람회  
(APEC Investment Mart)
- 일시 및 장소
  - 1999. 6. 2 - 6. 5
  - COEX(10,368s/m), 인터콘티넨탈호텔
- 행사주제  
The New Asia-Pacific :  
Investors' Choice for the 21st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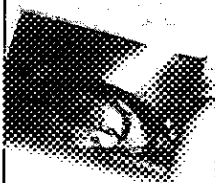


## 주요행사




## 주요 행사

- 투자전시회
- 개별투자환경설명회
- 저명인사초청강연회



### 투자인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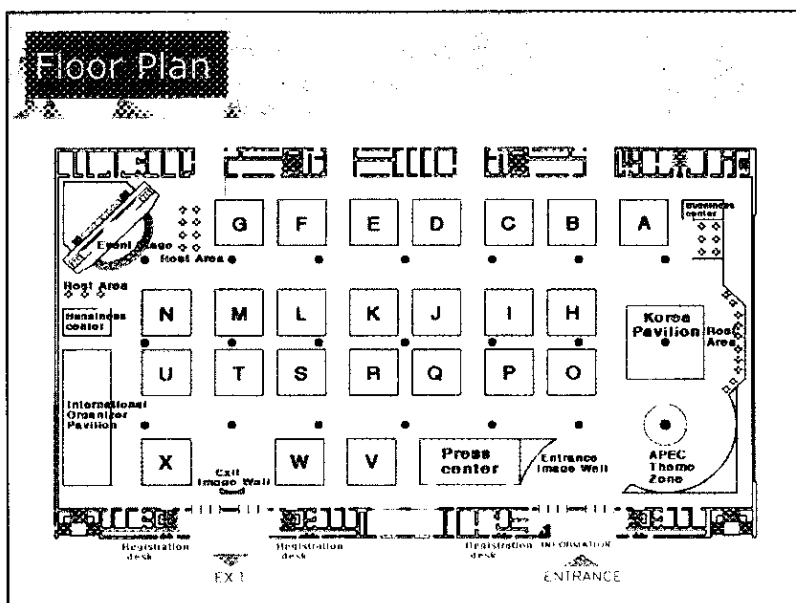
- ▣ 개최일시 : 6. 2 - 6. 5 (4일간)
- ▣ 개최장소 : COEX 전시장
- ▣ 참가형태 : 21개의 회원관
- ▣ 후원기관 : ADB, UNCTA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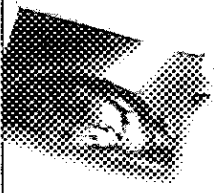


## 전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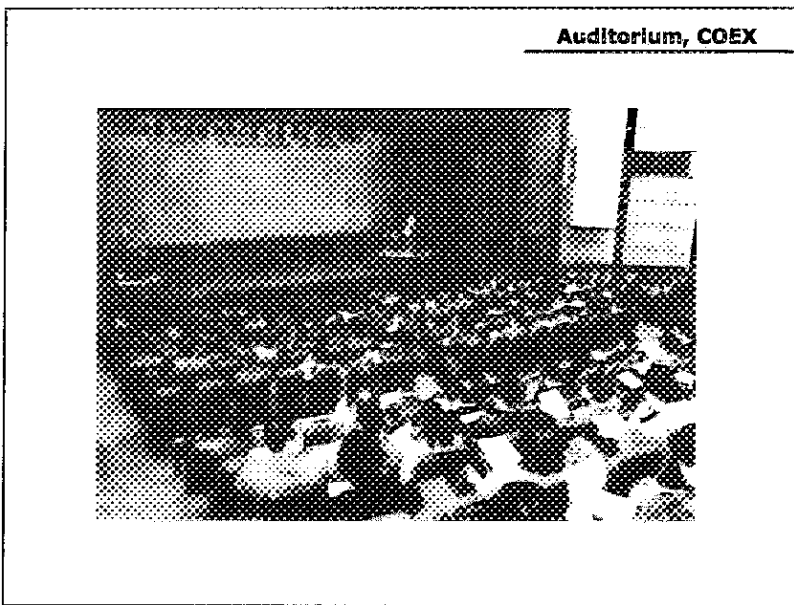
- ▣ 전시물
  - 투자환경 소개내용
  - 주요투자대상 프로젝트 및 매물
- ▣ 면적배정
  - 회 원 관 : 3,000s/m
  - 국제기구관 : 500s/m
  - 기     타 : 800s/m

\*프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문화공연장 등





▫ 개최일시 : 6. 3 - 6. 4  
 ▫ 개최장소 : COEX 회의실  
 ▫ 1시간동안 투자관련 제도 및 환경 설명 (Q&A 포함)  
 ▫ COEX 대회의실 및 국제회의실에서 각각 동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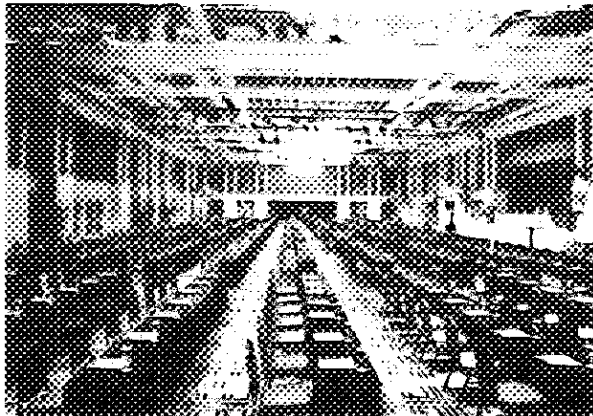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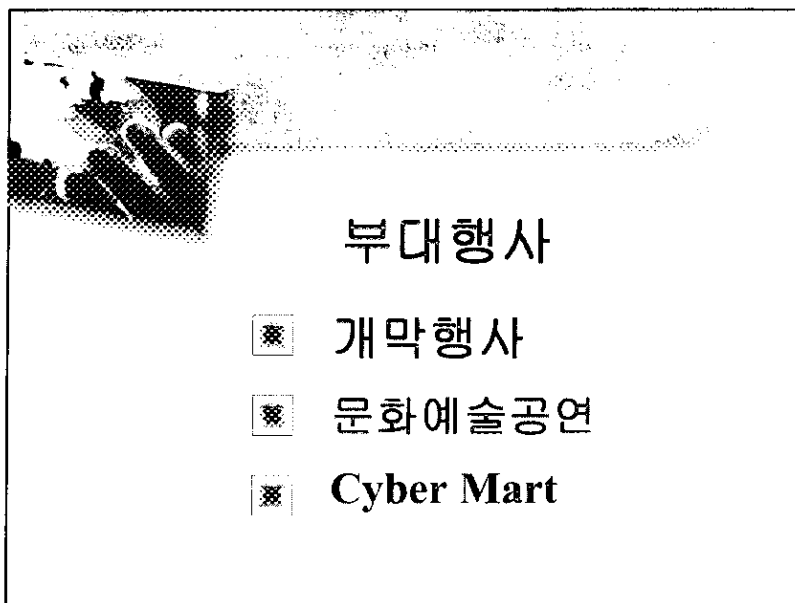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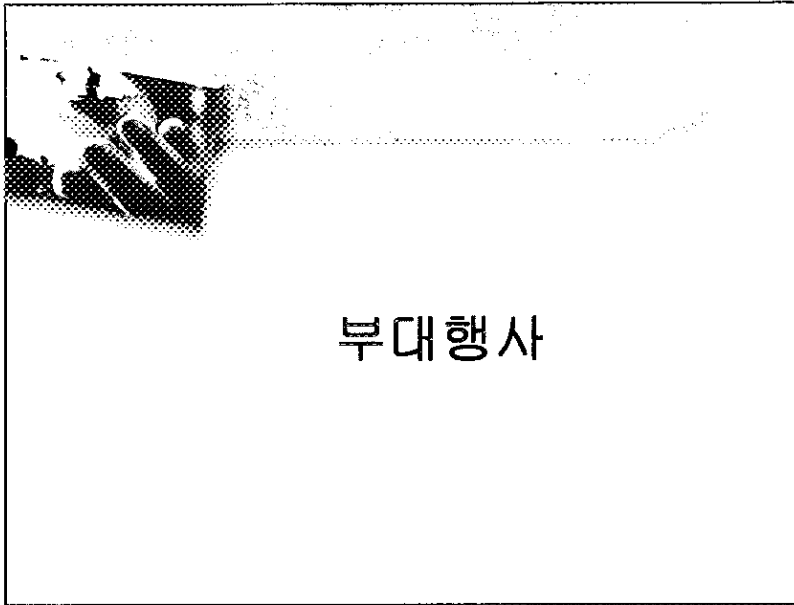


## 개회식


- ▣ 6. 2 14:00-16:00 오후강연회
- ▣ 6. 3 07:00-09:00 조찬강연회
- ▣ 6. 3 12:00-14:00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오찬강연회
- ▣ 개최장소 : COEX 국제회의실 및  
인터콘티넨탈호텔
- ▣ 초빙연사 : Dunning 교수 등 저명  
경제학자 및 CEO

Grand ballroom, Hotel Inter-continental











### 개막행사

- 리셉션
  - 일 시 : 6. 1. 18:30-20 : 30
  - 장 소 : 인터콘그랜드볼룸
  - 참석대상 : 사절단 및 잠재투자가  
1,000여명




### 개막행사

- 개막식 테이프커팅 행사
  - 일 시 : 6. 2. 11:30
  - 장 소 : COEX 전시장 입구
  - 참석대상 : 각 APEC회원의 대표 등  
주요인사



## 개막행사

- 개막오찬
  - 일 시 : 6. 2. 12:00-14:00
  - 장 소 : 인터콘 그랜드볼룸
  - 참석대상 : APEC 주요인사 및  
주요 잠재투자가 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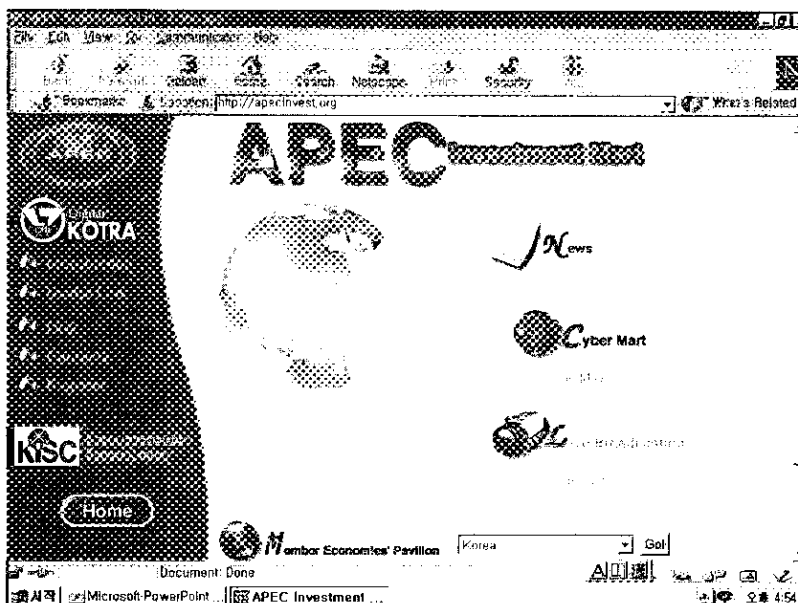
## 문화예술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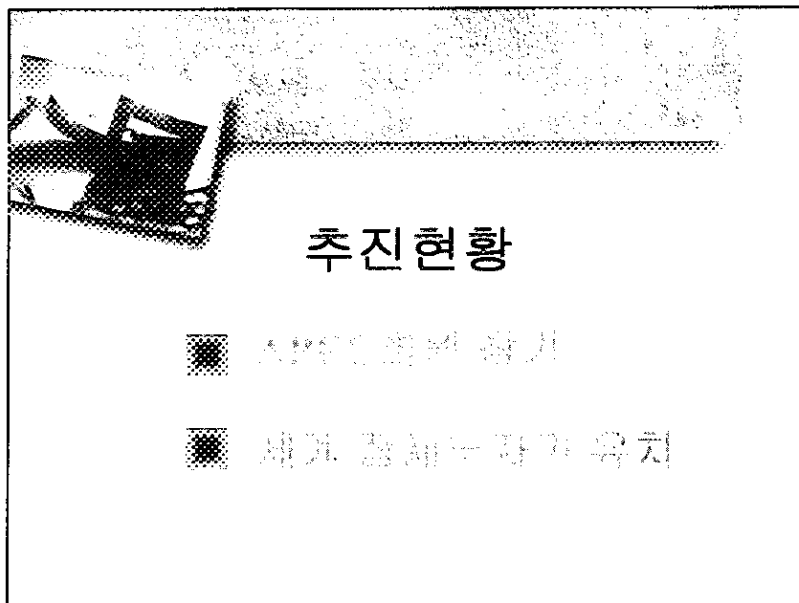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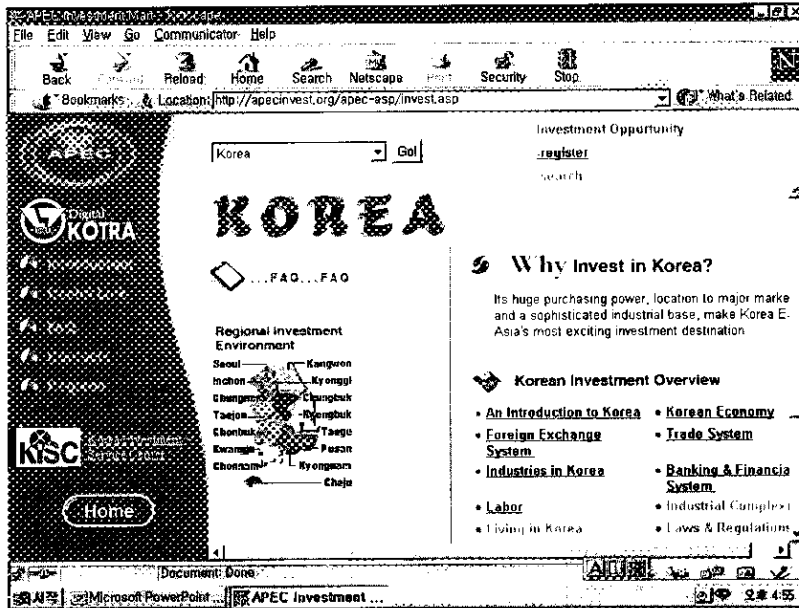
- 공연기간 : 6. 2 - 6. 5
- 공연장소 : 전시장내 폭설무대
- 공연내용 : 전통문화 공연
  - \* 민속춤, 전통의상 쇼, 연극 등




## Cyber Mart

- Virtual Investment Mart 시현
  - 21개 회원별 Homepage 구축
  - 투자매물 검색 DB 제공
  - 투자환경 및 투자매물 소개
  -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
- 5월중 Cyber Exhibition 전환 예정
- 홈페이지 : [www.apecinvest.org](http://www.apecinvest.org)









### APEC 회원 참가

- 정부관료, 투자유관기관, 투자유치 희망기업 등 1,000여명
- 매물 3만여건 등록 (Cyber Mart에 등록)
  - APEC 민영화관을 독립부스로 전시
  - 투자매물 검색 DB 제공



### APEC 회원 참가

- 전회원 참가 예상
  - 12개회원 정식참가신청(3.29일현재)
  - 여타 회원도 참가원칙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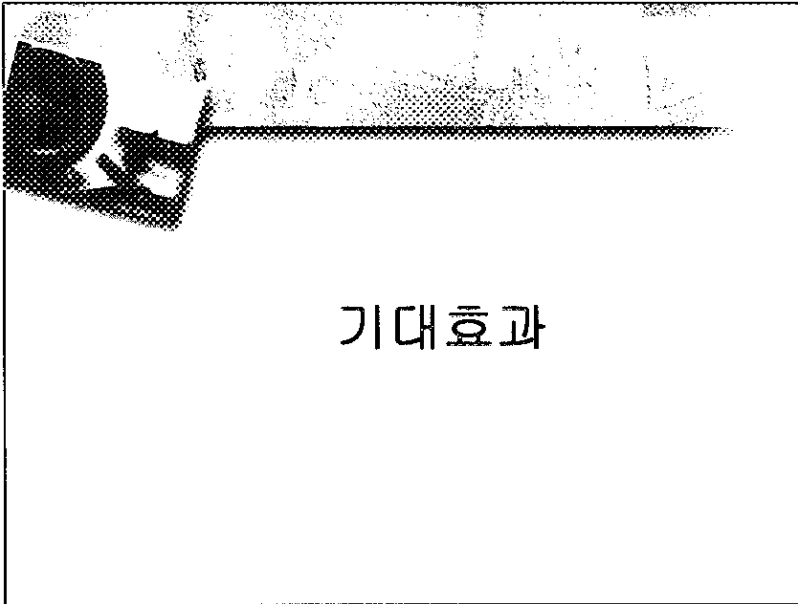
**세계 잠재투자자 유치 - 2,000명**

- 45개 해외무역관 네트워크 활용
  - C/L 60만부 발송
  - 대통령 초청 서한 발송
  - 6개언어 제작 행사홍보 팜플렛 발송



**세계 잠재투자자 유치 - 2,000명**

- Official Promotor 및 Sponsor 활용
  - 전문 PR Agency
  - MIGA, ADB 보유 D/B
- 세계 투자금융회사 및 컨설팅기관 Sponsorship 추진



## 기대효과



***The World's Single Largest  
Investment Opportunity***

- ★ 한자리에서 APEC 21개 회원의  
투자환경 비교 및 상담
- 조사비용 절감
- 최적의 투자대상 물색



***The World's Single Largest  
Investment Opportunity***

★ APEC 21개 회원의 최신 투자 Project  
발굴 기회

- 특히 공기업 민영화 Project 에 대한  
정보 입수




***The World's Single Largest  
Investment Opportunity***

★ 정책결정자와의 최신 투자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상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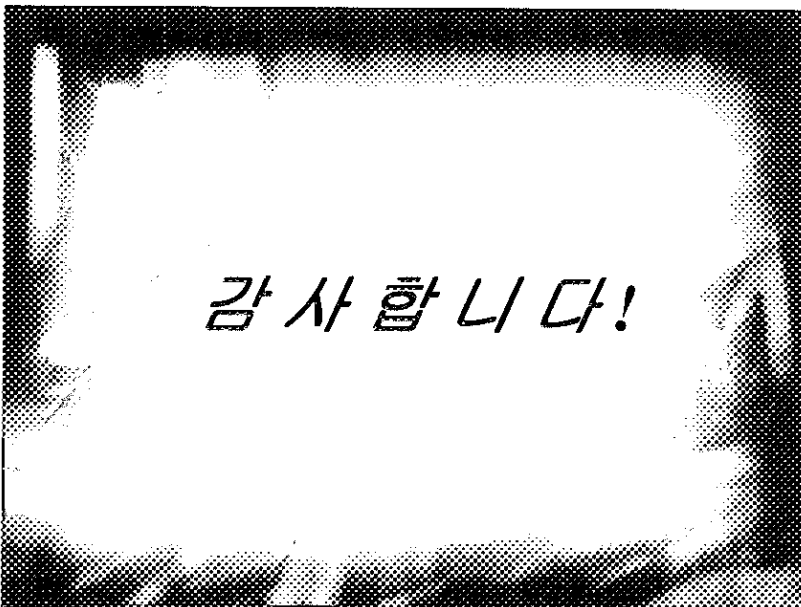
- 정책결정자 및 투자가와 인맥구축
- 장래투자계획의 구체화





**세계 최초의 APEC 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본의 중심적 역할 기대**

- APEC경제활성화를 주도하는 한·일 양국 이미지 부각
- 21세기 동반자로서의 한·일양국관계 과시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 日韓文化交流에 대하여



(財)日韓文化交流基金  
理事長 熊谷直博

「교류증진분야」합동분과회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제인도 아니고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는 해도 소위 「문화인」도 아닙니다. 단지 일한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가 돈독해지고 확대되어 가기를 바라면서 밤낮으로 양국의 인물·학술교류 확충을 위해 미력을 바치고 있으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양국의 미래가 빛나기를 비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는 경제·무역분야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에 관한 여러분의 토론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1965년 당시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 협상에 일본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한 자로서 그 후 30수년간 양국의 정치·경제 관계가 크나큰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당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치·경제」면과 비교하면 「문화」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커다란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가간의 정치·경제관계 발전의 배후에는, 혹은 그 기반으로서 문화와 사회면에서의 관계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본 회의의 공동주최자인 일본측 의장,

일한경제협회의 후지무라 회장님은 일한문화교류기금의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경제」와 「문화」 양면에서 밝으신 분으로 정말로 최 적임자가 의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면에서 작년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金大中 대통령께서 국민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시고 궁중에서 천황과 친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또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을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관계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이 때에 양국 정부가 제창한 「행동계획」에 대해서는 그 후 양국 정부간 회합에서 향후 10년간 1만명의 중학생·고등학생들이 상호간에 상대국을 방문하고, 10년 후에는 한국 이공계 대학생 일본 유학생수를 1,000명에 이르게 한다는 등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金大中 대통령이 귀국하신 수일 후에는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일본 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그 후 한국에서 일본 영화도 상영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양국 공동주최로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간 문화교류 면에서의 진전은 실로 괄목할 만합니다.

일한 양국 정부간에 「일한 문화교류」에 대하여 매년 「일한·한일 문화교류 실무자협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경에서 금년도 본의 협회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서 양국이 교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① 미래지향, ② 청소년 중시, ③ 공동작업, ④ 풀뿌리 교류의 중요성 등입니다. 저희들 「일한문화교류기금」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교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한문화교류기금」의 교류 사업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한문화교류기금은 1983년 12월에 외무성 산하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의 일한 관계를 보면 정치·경제면에서의 교류는 활발했으나 학술·문화면에서의 교류가 부진함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한의원연맹·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일한 양국이 각각 「문화교류기금」을 설립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경단련의 협력으로 기금을 모집하여 기본금 4억엔으로 「일한문화교류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듬해 「한일문화교류기금」이 발족되었습니다.

외국과의 문화교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각국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교류를 도모하는 「국제교류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와의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한 조직을 갖는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일본처럼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조직인 「일한문화교류기금」과 같은 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일본 특유의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가, 다시 말하여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설립된 「일한문화교류기금」은 설립 이래 작년에 15주년을 맞았고, 금년에 1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간 「기금」은 일한 양국의 인적 및 학술면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설립 후 6년째인 1989년에는 일본 정부가 「일한학술문화 청소년교류사업」을 새로 책정하고 나아가서 1995년에는 「일한평화우호교류계획사업」을 새로이 책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각각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전자의 「일한학술문화 청소년교류사업」은 21세기를 향한 세계적 시야에서 새로운 일한간의 우호친선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적 기반에 입각한 양국간의 학술·문화, 청소년간의 폭넓은 교류를 확대하고 촉진함으로써 양국민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로서 이를 지원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교류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한평화우호교류계획사업」은 1995년의 전후 50주년을 계기로 그 전년인 1994년 8월에 무라야마 내각총리대신 담화로 발표된 「평화우호교류계획」의 일환으로 책정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 근린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디가 힘든 고통과 슬픔을 준 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하에 아시아 근린국가와의 관계사를 직시하도록 책정된 것입니다.

이들 기금 사업을 엄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나누어 드린 「교류사업실적표」를 보시면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1) 「청소년교류사업」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한국에 일본의 교직원, 대학생 등

을 연간 200~300명씩 파견하고, 또 반대로 일본의 문화, 습관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의 교직원, 대학생, 고교생 등을 연간 300~400명 일본에 초빙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의 金大中 대통령 방일시의 합의에 따라 중고생 초빙사업이 추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2) 「방일연구자」 (펠로쉽)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학자, 문화인 등 폭넓은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금」의 펠로쉽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연간 30~40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일반(아카데미)과 역사 분야로 구분됩니다.

(3) 지원 사업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인적교류, 국제회의, 세미나,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한국에서 참가자가 방일할 시에 여비 및 체재비, 일본에서 회의 참가 목적으로 방한하는 일본인을 위한 여비 및 체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기금 자체가 주최하는 「합동학술회의」도 있습니다.

(4) 한국 이해 촉진 사업

일본 국내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등에 대한 관심, 이해를 높이고 한국과의 상호이해 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금」주최로 지방공공단체 관계자를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5) 도서센터사업

일한 관계와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관련도서, 신문, 잡지, 비디오, 한복, 놀이도구 등의 수집·열람·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6) 기타 관련사업

① 한국도서 번역·출판사업

한국의 역사, 문화, 사상, 문학 등에 관한 한국의 우량도서 및 한국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서의 번역·출판 사업입니다.

② 도서정보·홍보사업

홍보지 「일한문화교류기금NEWS」를 간행하며,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일한문화교류기금」은 이상과 같이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일한간의 문화교류 확대에 힘쓰고 있는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한간의 문화교류의 현황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며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초빙」·「파견」이라는 형태의 이른바 「인물 교류」는 일한문화교류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조직, 지방자치단체 등 양국의 모든 레벨에서 빈번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근년에 크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보면 소위 자매도시 관계는 1968년 10월 일본의 하기사(萩市, 山口県)와 한국의 울산시(경남)가 자매도시관계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1970년 4월에 나라시(奈良市)와 경주시(경북), 그 이후 1970년대에는 11건, 80년대에는 20건, 90년대에는 44건에 이르며, 1998년 11월 현재 그 수는 76건이나 됩니다. 또 소위 자매관계를 맺어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 많고 초등학교간 레벨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일한 양국간에는 많은 항공노선도 개설되어 있으며, 일본의 17개 도시와 한국의 4개 도시 사이에 주 614편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경에서 일한교류기금 주최로 일본의 「지방 레벨의 일한교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방 레벨에서의 일한 교류의 실상과 문제점을 밝히면서 보다 나은 바람직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관계자로부터 경비면, 언어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포함해 교류의 실태가 소개되었습니다. 교류 실태를 보면 현재로서는 쌍방의 현(県), 시정촌(市町村)의 관계자들이 상대측 카운티파트를 방문하는 소위 방문형식의 「인물교류」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여 카운티파트의 조직 및 단체에 의한 환영 리셉션과 같은 접촉을 가진 다음에 관광 행사가 있고, 여기에 홈스테이가 곁들여지는 경우가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방문여행」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을 통하여 「친선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물론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방문」이상으로 특정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문화교류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현실은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는 일한 양국 관계가 이러한 단계에서 이제 일보 전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 전통문화의 상호 교류 등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몇몇 단체와 조직의 일한간 교류가 예외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실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문화교류라는 관점에서는 현재 상태는 아직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인적 교류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간 상당수에 달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힘을 쏟아야 할 교류 형태」는 무엇인지 「더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한문화교류기금」의 교류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초빙사업」과 「파견사업」에서는 서로 상대국을 방문한 후에 참가자들로부터 「인상기」나 「감상문」을 제출 받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바람직한 연수단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아주 참고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최근의 감상문 가운데서 「이미지의 변화」와 「홈스테이」에 대하여 정리한 것을 참고로 배부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 분과회의 「제언」으로 이어질만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라 「구체적 목적」에 입각한 교류를 지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인물 교류」시에는 가능한 한 「홈스테이」를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 가능한 한 「같은 세대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궁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상대국의 생활에 접하여 좋은 점을 보면서 방문 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선입관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가 「홈스테이」 및 「같은 세대간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에 관한 감상문을 읽으면 초청자측, 손님측 쌍방간의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심화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개선을 요하는 점」, 또는 교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홈스테이」감상문 가운데도 상대국의 말을 몰라서 상호 이해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홈스테이」뿐만이 아니라 인적 교류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지역 레벨 교류」회의에서 드러난 것도 이 점입니다. 통역을 해 줄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 레벨 교류」회의에서 어드바이스한 것은 우선 가까이 있는 한국 유학 경험자나 일본에 계시는 한국분들께 협력을 구하여 교류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었고, 한편으로 자기가 속한 지방 공공단체나 조직 속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어와 한국인들의 일본어 능력, 지식의 정도를 비교하면 단연코 후자가 전자를 상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 교류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일한간의 교류에서도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특히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즉 일본측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 어떻게든 시정해갔으면 합니다. 국교정상화 이후 30수년간 일본인이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환경은 크게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는 일본의 대학 및 고등학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환경이 미비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학교로 신주쿠의 「한국아카데미」나 NHK의 한글 강좌, 또 2, 3개 신문사에서 문화센터 형태로 개설해 놓은 한국어 강좌가 있지만 일본 전국에 무수히 많은 소위 「외국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이고 한국어는 예외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의 비약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일반 일본인들의 바쁜 생활 환경이 한국어 학습의 열의와 노력을 감퇴시키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또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은 물론, 정공법으로서는 더욱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유학 가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일한 양국간의 이 「언어의 언밸런스」는 없앨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한국어 학습 환경 정비 문제는 이 본과회의 제언의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법한 테마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장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한가지만 감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20년만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때 도로 표지에 한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일한간 교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한자 부활 움직임이 있어서 도로 표지에도 한자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産業貿易會議」新設에 관하여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村上 弘芳

어제 개최된 전체회의 모두의 일반경과보고에서 申德鉉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님께서 본 건에 관한 작년도 중의 검토 내용과 양국 경제협회 회장간의 합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31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승인을 얻어 금년부터 본 산업무역회의를 스타트시킬 것을 일한·한일 양 경제협회의 공동제안으로서 이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 미야자키시(宮崎市)에서 열린 제30회 일한·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합의된 「시스템 재점검」, 즉 “경제인회의가 통괄하는 전문위원회와 교류사업, 기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를 재점검하고 개혁 개선방안을 작성하라”는 지시가 양 협회 사무국에 내려졌습니다.

일본측 각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무역투자·기계공업·산업일반 이상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무역회의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한국측에 제시되었고 한국측 각 위원회도 이에 동의하여 어제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들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합동회의 식사에서 그 방향이 확인되고 합의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본 건에 관련된 검토, 의견 교환이 모든 관계자간에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서 관계자 각위의 그간의 협력에 대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시스템 재점검」작업의 과정 등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고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가일층의 구조 개혁과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재, 경제인회의 소속 3개 위원회의 공통의 관심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실태에 착안하여 이를 통합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共感帶와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며 합리화라는 방향에도 부합되는 개혁입니다. 또 나아가서 경제인회의의 길잡이로서의 기능을 기대케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산업무역회의는 기계공업이라든지 무역투자 등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한 액세스(access)를 남겨둔 채, 보다 폭 넓은 관심 분야에서 공감대와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정보와 의견 교환의 장이며, 동시에 경제인회의의 논의를 지원하고 혹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경영자와 영 이그제티브(young executive)들의 배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산업일반위원회가 활용해 온 태스크포스(task force) 방식을 통해 시간을 들여 조사, 연구하는 방법도 답습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일본에서의 개최를 목표로 지금부터 양국 사무국간에 회의 구성과 참석자 등 상세한 내용에 관해 의논하여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양 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여러분께 새로 신설되는 이 회의에 대한 최대한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역투자위원회는 1976년부터 25회, 기계공업위원회는 1977년부터 24회, 각각 합동회의를 개최했으며, 산업일반위원회는 1991년에 발족된 이래 4차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개 위원회는 오랫동안 일본과 한국의 민간경제 관계 발전과 확대를 위해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러 선배 제위의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선배들이 남기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이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또한 3개 위원회 통합과 新회의 발족은 「시스템 재점검」작업의 성과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 환경이 한층 더 변화됨에 따라 계속 우리 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필요성은 앞으로 한 두 해 정도는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인용했던 작년의 공동성명 합의사항 제 6항은 금년도

에도 계속 남겨 둘 것을 아울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새로운 산업무역회의 설립에 관하여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合同分科會 提案〉

##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派遣



大韓製糖(株)  
會長 薛元鳳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提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本 미션은 지난 '89年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韓國側에서 6回, 日本側에서 3回 相互派遣하여 세미나 및 懇談會 개최, TOP經營人 招請 講演會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兩國의 協力方案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兩國 經營人間의 相互理解와 交流增進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兩國의 經濟人 및 關係者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韓國의 經濟는 IMF 사태를 계기로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苦痛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으며, 日本 또한 長期化되고 있는 景氣沈滯의 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으로 아시아經濟의 回復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은 改革을 推進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韓日 兩國 모두에게 있어 21世紀 世界經濟를 주도해 갈 중요한 轉換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확신으로 韓日 兩國은 相互信賴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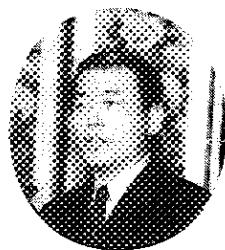
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相互補完的 提携와 協力關係를 가일층 강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도 本 事業은 21世紀를 주도해 나아가갈 韓日 兩國의 젊은 經濟人間의 확고한 信賴와 協力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미션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今年 韓國의 『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을 日本에 파견할 것을 提案합니다.

아무쪼록 本 事業이 더 한층 活性化될 수 있도록 日本側 財界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付託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答 辯



麻生시멘트(株)  
社長 麻生 泰

일본측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아소시멘트의 아소라고 합니다. 작년 설원봉 회장님의 지시 하에 일본측 단원 25명이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여 많은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원봉 회장님으로부터 금년은 일본으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일정 등 스케줄에 관해서는 양국 사무국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까만,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후쿠오카로 여러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큐슈 지역에서 양국간의 장래를 내다 본 형태로,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도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꺼이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제의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후쿠오카에서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合同分科會 提案〉

## 韓國訪日輸出促進團 및 産業技術交流促進미션 派遣



(株)HOTEL 新羅  
社長 李吉鉉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提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提案事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世界는 역사적인 대변환기를 맞이하여 經濟沈滯와 保護主義의 심화, 그리고 國際金融市場의 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韓日 兩國은 경제의 競爭力 회복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景氣回復을 위해 강력한 構造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韓國政府는 市場開放과 관련되는 法規의 적극적인 개정 등 확고한 의지로써 각종 改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輸出擴大 및 投資誘致 努力으로 난국을 早期에 극복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當協會와 日本貿易振興會에서는 韓日 兩國間의 貿易擴大를 통한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1985년부터 『韓國訪日輸出促進團』을 60회에 걸쳐 中堅・中小企業體 2,242개사 3,000여명을 일본에 파견하여 25,351건의 輸出商談 및 日本 現地 商工人과의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輸出擴大는 물론 相互 協力關係를 돈독히 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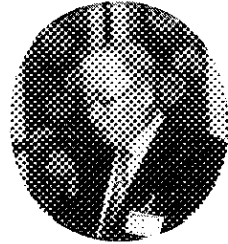
同 輸出促進團은 그 동안의 問題點을 補完・改善하여 今年에도 3회에 걸쳐 東京, 오사카를 중심으로 派遣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同 事業이 소기의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兩國 中小企業間 交流促進 및 技術協力 強化를 위한 産業技術協力事業의 일환인 『産業技術交流促進미션』사업은 1993년부터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에서 受容해 오고 있습니다만, 今年부터는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과 共同事業으로하여 종래 1회 40名の 정원을 年 2회로하여 합계 80명으로 늘려 파견키로 합의하였으므로 今年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日本 代表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答 辯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村上 弘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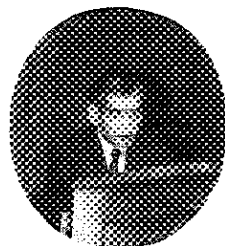
방금 이길현 사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한일 양국간의 경제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대응해야 될 과제로서 부응하고 있는 무역, 산업기술교류와 관련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측은 한일경제협회, 일본측에서는 JETRO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안 중에 나왔던 바와 같이 이 사업은 14년간에 걸쳐서 60회의 방문이 있었고, 아주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사무국인 일본무역진흥회에 의하면 세 차례에 걸친 방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동경과 오사카에서의 개최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일본측으로는 일한시장협의회와 일본무역진흥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한경제협회를 포함한 일본 비즈니스협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은 산업기술협력재단이 담당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양국 재단의 공동사업으로 변경되어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더 활발하고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合同分科會 共同提案〉

## 靑少年交流韓日大學生 相互訪問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理 事 下 出 道 雄

일한경제협회의 下出입니다. 청소년교류한일대학생 상호방문에 대하여 일한 양국의 공동제안으로서 대표하여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교류사업은 일한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1985년에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한국에서 모두 14회에 걸쳐서 626명, 일본에서는 1988년 이후 모두 11회에 걸쳐서 326명, 양국 합해서 952명의 대학생이 상호 방문했습니다. 참가 대학생들은 일한·한일 양 경제협회의 회원기업·단체 임직원의 자제들이 중심입니다. 또한 교류내용은 양국 대학생 상호교류, 민박, 사적과 문화·산업시설 견학 등, 서로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관점을 중시하여 폭 넓은 것이 되도록 유의 하면서 실시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일한 양국의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우호를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에게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시절에 서로의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얻어진 경험이 앞으로 반드시 양국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매년 참가한 양국의 학생들로부터 감상문의 제출을 받고 있는 바, 일본측에서

는 이것을 본 협회의 기관지인 「협회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매년 많은 학생들이 신선한 체험을 하면서 이웃나라에 대한 고정적인 선입관이 우호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대의 학생끼리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계발하고 우정을 기르게 되며, 아울러 민박을 통해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게 되는 등,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깊은 교류를 기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작년 10월에 金大中 대통령께서 방일하시고 양국 사이에서 「21세기를 향한 새 일한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이 합의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이 거론되고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양국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경제협회의 재정상황도 똑 같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본 사업의 계속적 실시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가 학생들에게도 귀중한 연수여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철저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제계 및 양국 회원사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얻으면서 금년도에도 청소년교류한일대학생 상호방문사업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全 體 會 義 ②

## 第 1 分科會 報告 (韓國側)



大宇經濟研究所  
社長 李 漢 久

저희 분과회에서는 한일간의 무역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한일 양측에서 각각 한 분이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주로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선 한국측에서 발표하신 LG경제연구원의 金道卿 실장께서는 「韓日自由貿易地帶 創設의 影響과 展望」이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보고는 전반적으로 한국측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지대에 기대하는 효과, 또 그와 관련해서 경계해야 할 점을 분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시다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차원에서 한일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산업계의 실무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산업측의 무역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측면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 예로서 아시아지역에서의 통화기금이랄지 상호결제 통화활용 문제, 엔의 국제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점만이 아니고 특이한 현상으로서 비관세장벽의 해소가 이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화장벽의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경험에서 보듯이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 예를 들어서 환경, 농업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 부속협정을 맺어서 별도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했던 중요한 부분은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양국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비교적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시간을 두고 많은 연구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에 앞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본교류, 기술교류 등 제반 신뢰관계 구축이 좀더 가속화되는 것이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 코멘테이터나 플로어에서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관련해서 보완적인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실질적인 협력, 가시적인 성과를 지향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는데 대해서는 모두다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것 중에서는 정부보다는 산업계부터 먼저 좀 해보자, 또 예를 들어 쿼슈 지역 같은 일부지역부터 이 정신을 살려보자, 또는 옛날의 EC가 한 것처럼(EC의 경우 철강이나 에너지부문에 먼저 하였음) 일부산업부터 이 정신을 살려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매우 전향적인 제안이 있었다 하는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양국간에 자유무역이 저해되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근본적으로 보아서 자본교류나 기술교류가 자꾸 제약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양국의 수출경합품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또 산업조치를 한 번 재검토해 보자, 환율정책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생산요소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쿼슈에서 오신 분께서도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쿼슈에서 구체적으로 시민차원에서 양국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계시는데 쿼슈를 21세기 양국 교류의 파이프라인 장소로서 한 번 정립을 해 보겠다, 특히 관광산업을 같이 해 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식의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첫째 중요한 지적 중의 하나는, 지금 양국간에 무역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는데 이것이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양국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이것으로 최종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의 자유무역지대,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하고 또 다른 나라, 대만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동남아지역 전반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확실히 매우 실용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조되었던 분야 중의 하나는 양국간에 너무 경쟁자관계 인식이 강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동반자관계를 좀더 강조하고 실천하자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동반자관계에서 실천을 해 보자, 그래서 제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있고, 또 제조업의 경우에도 생산기술 분야나 이런 것들은 좀 특별히 취급을 해서 협력관계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또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내지는 중요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할 때에 있어서 소유의 공동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천할 분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된다는 부언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측 코디네이터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본측에서 발표한 자료와 관련해서 양국간의 Business alliance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느끼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허심탄회한 분석이었고 정확한 분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본측에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보려고 하는 시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제도가 바뀌고 관행이 바뀌고 한국 내에 일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본기업들이 과거에 특히 여기에 와서 느꼈던 불편 중의 하나는 종업원들이 상당부분 반감을 가진 경우를 느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던 사회전반에 운동가이던 간에 기업에 대한 인식이 한국은 일본보다는 분명히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역사가 짧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진지하게 심각한 도전으로서 경영자들의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 일본기업의 독특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같이 노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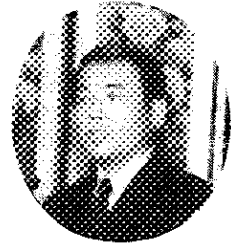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한일간의 문화교류가 좀더 원활하게 되어서 양국간의 상호 배타적인 분위기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든지 현지에 관련되는 상황을 상호 나와있는 대리점이나 지사를 통해서 좀더 공부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홍보를 촉진시켜 주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양국이 서로 동일국가처럼 생각을 하고 구조조정 문제에 대처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는 매우 커다란 도전에 놓여 있습니다. 영리시스템을 어느 정도 폭넓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국경개념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양국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일본과 한국은 마침 매크로(거시) 측면에서는 매우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저축이 넘쳐흐르고 또 외화의 잉여가 충분하고 기술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의욕은 굉장히 강합니다만 저축과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 있고, 제반 보충해야 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같은 시장으로 보면 얼마든지 국내에서 하는 투자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를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측은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양국은 전체그림은 잘 그렸습니다. 계속 매년 모이면서 좋은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천이 못 미쳤다고 하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체그림 그리기보다는 가능한 부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차원에서의 역할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 第 1 分科會 報告 (日本側)



麻生시멘트(株)  
社長 麻生 泰

일본측 의장을 맡은 아소시멘트의 아소라고 합니다. 일본측으로부터 「今後の日韓 Business alliance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三菱商事(株)의 中村 喜起 서울지점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제팬클럽의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한국과 일본이 접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자세의 차이라고 할까요, 특히 한국정부의 아주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구조조정의 움직임이라든지 규제개혁조치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상황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그에 반해 일본의 대응자세가 너무 느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Business alliance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평적 분업의 가능성 같은 제안이 있었습시다만, 역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커다란 전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Business alliance에 있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와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향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장기적인 시점에 입각한 지적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의에 10년 동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제가 항상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유로운 정말로 솔직한 여러분

들의 의견이 어떤 문서라든지 직접 여러분의 발표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라는 점, 비교적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양국의 경제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거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논의되고, 앞으로는 동일시장, 동일공급자로서의 자세를 지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번 회의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이후 그러한 분위기는 아주 고조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구상 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보다 가속화가 붙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로부터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Business alliance를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고용기회 증대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 커다란 전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보다 더 쉽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테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第 2 分科會 報告 (韓國側)



産業研究院  
先任研究委員 金都亨

제2분과회에서는 石川島播磨(이시가와지마하리마)重工業(株)의 大慈彌省三(오지미 쇼조) 부사장님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두 개의 페이퍼가 마련되었습니다. 삼부토건(주)의 趙恒九 사장님께서 「韓日 兩國의 建設協力 方向」, 그리고 富士 종합연구소의 海老名 誠(에비나 마코토) 국제조사부장께서 「日本企業은 韓國의 投資環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개의 백그라운드 페이퍼가 제출되고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을 말씀드리자면 이 분야야말로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실업사태, 고용불안, 경기대책의 특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 동안 양국 회의에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건설업이야말로 제조업 못지 않게 양국의 고유의 상관행이 있어서 그것이 항상 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고, 또 상호 인증분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고, 또 시장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조업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로서 이 건설업이 오늘 분과회에서는 아주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경기대책상 부동산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영종도 신공항, 고속전철, 서해안 고속도로 등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민간자본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가 하는 점을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차제

에 어떻게 하면 일본측으로부터 부족한 기술,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안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업은 오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趙恒九 사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20년간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건설업 양국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협력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3국 공동수주라든지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3국에 진출한다든지, 또는 조인트 벤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같이 작성한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일본시장에 우리 한국의 건설업이 진출을 해서 건설업 허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적은 그렇게 평가할만한 것이 없었다 라고 하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본에는 지진이 많지만 한국은 지진이 없는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기술상에 여러 가지 격차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도 최근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술재고가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역시 3국 진출분야는 공동으로 노력해 보아야 할 분야가 아니냐, 양국 시장을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은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착실하게 되는 것부터 해보자 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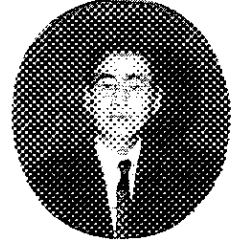
그 다음에 투자환경 조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오지미 쇼조 부사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까만, 몇 가지 감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이미 계셨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투자협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 상호 인증문제, 조세조약 등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요인을 제거해 갈 것을 정상회담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도 많은 투자환경에 관한 한 180도 전환을 시켰고, 그래서 위에서는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환경변화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말단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회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산성이 의뢰한 앙케이트 조사, 1차 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6월에는 최종

보고가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역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노동문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국제적인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협정 등에서 논의가 될 최혜국 대우문제, 내국민 대우문제에서도 역시 뭔가 불안요인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특히 일본에 있는 본사 요원들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르다, 뭔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앙케이트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에 제출될 최종보고를 보고 나서 우리의 정책전환에 대한 인식의 갭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자 하는 것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第 2 分科會 報告 (日本側)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副社長 大慈彌省三

지금 소개받은 오지미입니다. 김도형 연구위원님과 함께 제2분과회 코디네이터를 맡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자세하게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설업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건설업계 분야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제 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특히 환경사업이나 인프라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양국이 동시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점, 강점 같은 것을 서로 활용하고,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역시 한일수뇌회담에서 합의된 「경제 Agenda 21」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구체적인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쌓아 올려나가서 크게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로컬 투 로컬, 지역간교류도

활발히 시켜나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뢰관계,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 플로어로부터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이 첫 번째 섹션에 관한 저의 소감입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후지종합연구소의 에비나 부장님께서 일본측에서 바라본, 다시 말해서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보고였습니다. 앞으로 6월에 최종적인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앙케이트를 집계했던 시기가 비교적 빠른 시기였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변화 상황이 일본측, 특히 일본측 본사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식이 되지 못한 채 아마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왜 일본측 기업들의 對韓投資가 저조한가, 이것은 역시 코스트 면에서 비교우위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서는 제도의 불투명성, 자위적인 운영, 세제, 수출입규제, 통관규제 문제 같은 정책, 제도라든가 규제 문제, 그리고 노사관련 문제가 역시 일본측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어떤 문제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호에 대해서 일본측으로부터 상당히 신랄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일본측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제도 등의 문제도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에서 보면 그다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역시 동등한 파트너십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상호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지적을 하는 일본 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의 육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포함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어로부터 최근에 한국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일본측은 그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것이 아니냐, 한국 정부나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다, 굉장히 놀랄만한

추진력이다 하면서 일본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반성을 포함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앙케이트는 일본측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한 주문, 상황 판단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측에서 바라본 일본에 대한 주문과 관련된 똑같은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번에 실시한 것과 똑같은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한 번 비교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밖에 최근에 한국이 많이 변화했다 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한 부분을 일본이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해야 한다, 또는 앙케이트 조사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좀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또는 벤처기업들의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 그 다음에 유통,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해서도 좀더 우리가 함께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두 번째 일본측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 및 제안 등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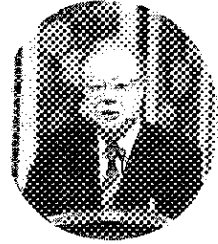
이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작년 이래 한국측의 대대적인 개혁 속에서 한일 양국이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과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디만,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하에서 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산업계 사람들이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자각했습니다. 간단하나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閉 會 式

〈閉會式〉

## 團 長 人 事



韓國側 代表團  
團 長 金 相 廈

尊敬하는 藤村 正哉(후지무라 마사야) 團長님을 비롯한 日本側 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韓國側 代表團 여러분.

저는 먼저,公私多忙하신데도 不拘하고 이번 會議에 參席하시어 이틀동안 虛心  
坦懷 하고 眞摯한 意見을 提示하여 주신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  
립니다.

이번 會議에서 우리는 兩國 經濟의 構造的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國境을 超越한  
企業間 協力이 必要하며, 나아가 産業協力, 資本과 技術交流 그리고 文化交流의  
幅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經濟共同體  
形成을 위해 兩國이 緊密히 協調하자는데 認識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重要的 成果로는 이번 會議처럼 兩國의 經濟人들이 隨時로 만  
나 友誼를 敦篤히 다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어떤 難關도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事實일 것입니다.

尊敬하는 兩國 代表團 여러분.

여러분께 特別히 當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會議에서 論議된 事項에 對해 具體적인 實現方案을 마련하고 積極적이고 持續적인 實踐을 通해 만드시 實現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 韓日經濟協會도 本 會議의 成果와 그 동안 쌓아온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韓日 兩國의 經濟協力增進에 最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支援과 協力を 付託드립니다.

끝으로 이틀간 會議에 參席하시느라 勞苦가 많으셨던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새 “千年”이 始作되는 來年 봄에 日本에서 다시 만나 뵈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閉會式〉

## 團 長 人 事



日 本 側 代 表 團  
團 長 藤 村 正 哉

그럼 간단하게 폐회인사와 함께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金相廈 단장님, 그리고 한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일본측 120여명의 대표단 여러분, 정말 이틀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원 여러분 어느 분께 여쭙보아도 이번 회의는 정말 좋았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아주 밀도 있는 적절한 포인트의 논의가 있었다 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진을 이룰 수 있는 회의였다는 감상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 있어서 이들간의 회의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예방 일정 등을 가졌었습니다. 4월 7일에 대표단이 한국에 와서 곧바로 산업자원부의 박태영 장관님, 이어서 재정경제부의 이규성 장관님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외교통상부의 홍순영 장관님, 자민련의 박태준 총재님,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맛있는 점심을 대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이틀동안 한국의 톱클래스에 있는 다섯 분을 만나 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부터는 점심까지 대접 받았

고,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는 30분 예정이었던 예방이 1시간이 되는 등 아주 진지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었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훌륭한 애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측 단원 전원이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단원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틀동안은 앞으로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를 보다 더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인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방을 포함해서 이틀간의 회의는 그야말로 저희들은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내년 4월에 이어서, 지금은 동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의에서는 한발 두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전진이 있기를 기대하고, 저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산업계, 경제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국 관계를 보다 더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책임을 느끼면서 그것을 짊어지고 나갈 주역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31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는 김상하 단장님의 많은 배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폐회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31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報 告 書**

1999年 5月 21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申 德 鉉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729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59-1  
(韓國貿易會館 705號)

TEL : 02-551-1541~9 FAX : 02-551-1540